

2003년 간디 청소년 학교 졸업 작품집

<내 종이 위의 간디학교>

간디 청소년 학교

이 안

2004.02.

차 례

1. 산청 간디학교

1) 입학식 -----	1
2) 인간 터널 -----	2
3) 책상을 부수다 -----	3
4) 붕괴 -----	4
5) 첫 기숙사 생활 -----	5
6)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6
7) 손 T -----	7
8) 성심원 봉사 -----	8
9) 성심원 낙엽쓸기 -----	9
10) 말동무 -----	10
11) 간디의 한해살이 -----	11
12) 1학년 지리산 종주 -----	12
13) 간디학교 음악회 -----	13

2. 둔 철

1) The playing in 둔철 -----	15
2) 둔철 화장실 -----	16
3) 월드컵1 -----	17
4) 월드컵2 -----	18
5) 올바른 재배 -----	19
6) 비 -----	20
7) 둔철의 사정 -----	21
8) (분명히) 과학시간 -----	22
9) 패션쇼 -----	23
10) 아스팔트가 묻은 길가의 풀잎 -----	24
11) 2002년 여름방학식 -----	25

3. 제천 간디학교

1) 양쌈	27
2) 김장	28
3) 권태	29
4) 미선이 효순이	30
5) 짧다	31
6) 설거지	32
7) 후배들	33
8) 김정고시	34
9) 5.18 캠프	35
10) 같은 시각	36
11) 중청봉 올라가는 길	37
12) 달그림자	38
13) 동상이귀(同床異鬼)	39
14) 장백산의 추억	40
15) 천지 감상	41
16) 2003년 3학년들 마지막 여름방학의 감상	42
17) 연옥	43
18) 사부님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44
19) 나쁜 선배	45
20)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	46
21) 단식풍경	47
22) 제천 연가 2기	48
23) 주를 여는 시간	49
24) 회의	50
25) 갈등	51
26) 심리상태1	52
27) 천연기념물	53
28) 유 리	54
29) 심리상태2	55
30) 10월 28일의 풍경	56
31) 선배-님	57
32) 취침전	58
33) 생활의 기쁨	59
34) 간략연 공연	60

4. 후기

내 종이 위의 간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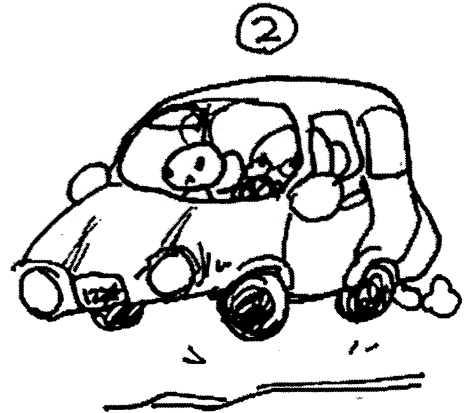


이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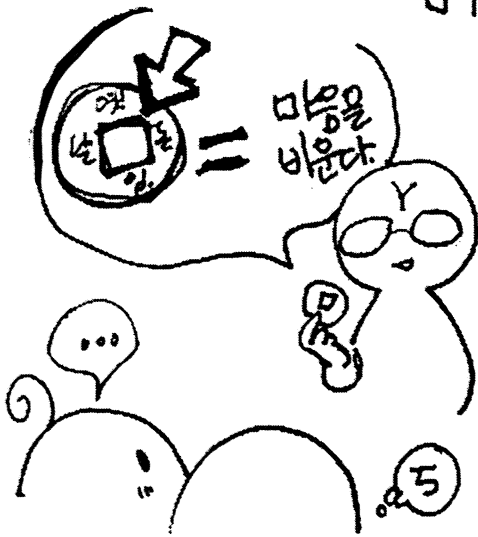
2001년 산청간디학교



- 입학식 -



축회 간디학교 입학식 하



인간터널



종교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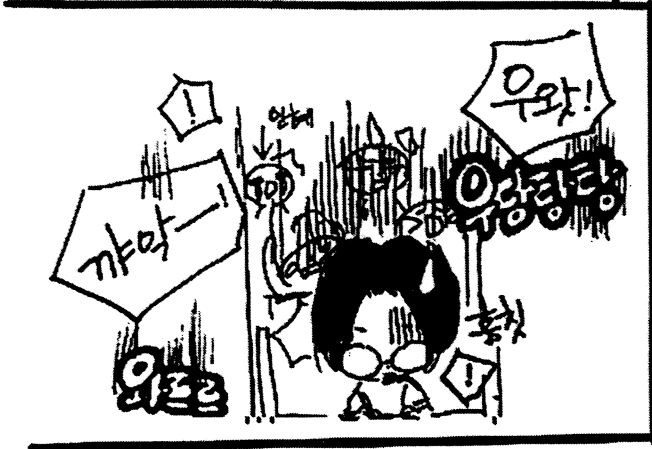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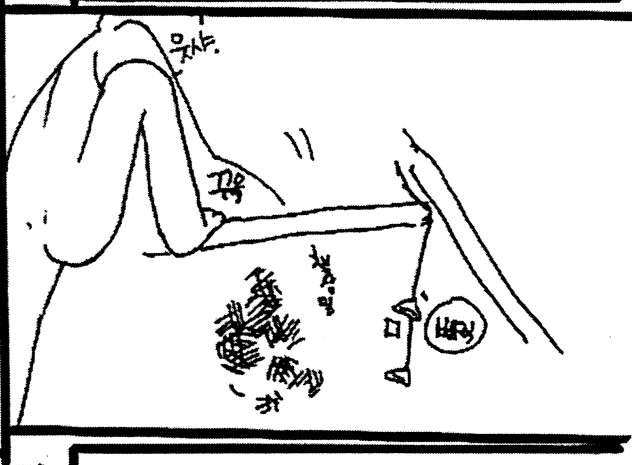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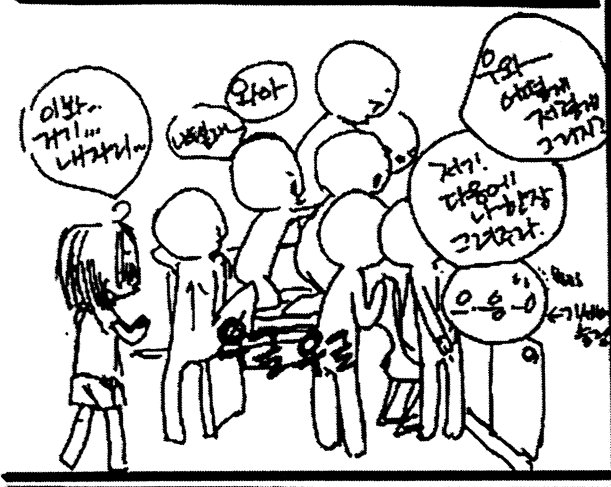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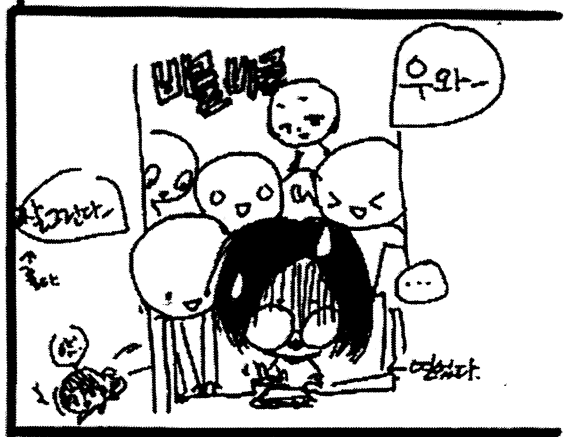


책상을 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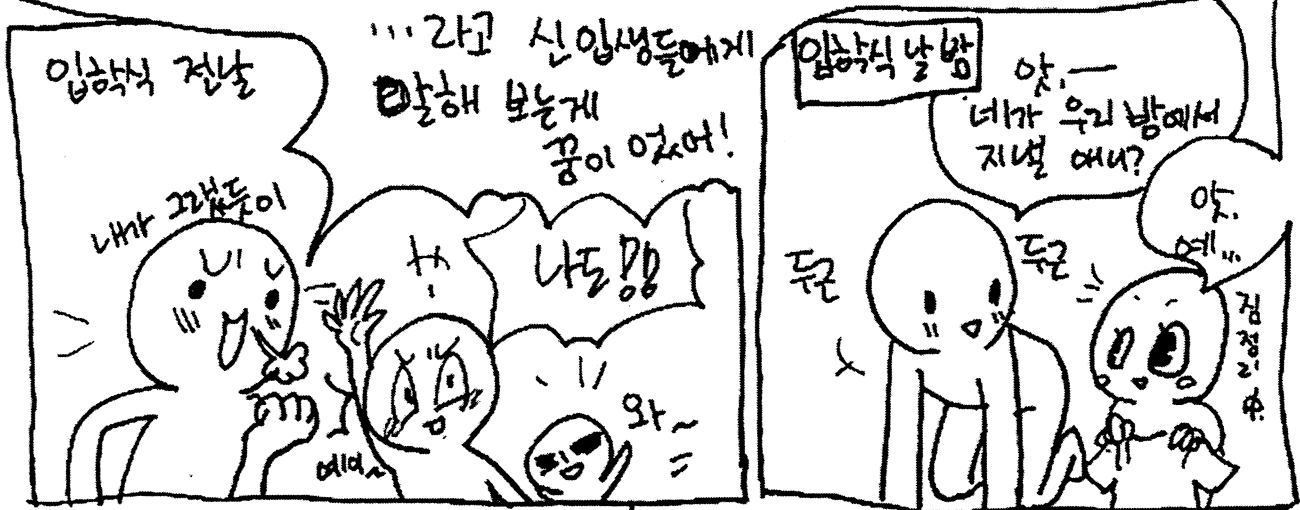
2001년 03월 05일
간디학교 기숙사 첫날밤.



따뜻한 하얀이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붕괴



• 신이생 오리엔테이션 •



노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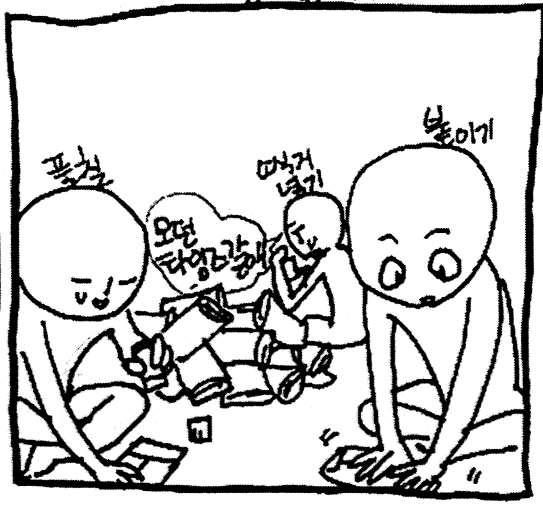


생생원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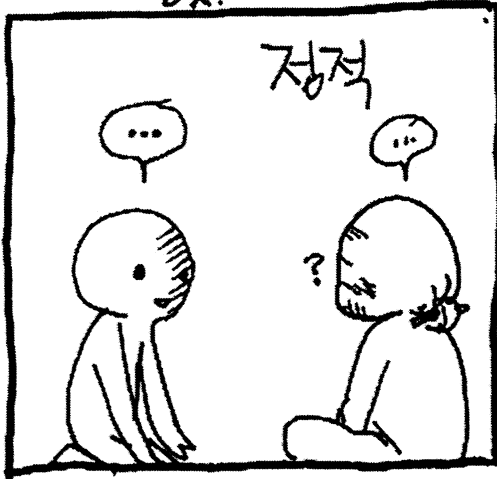
거름주기



반죽하기



만반.



저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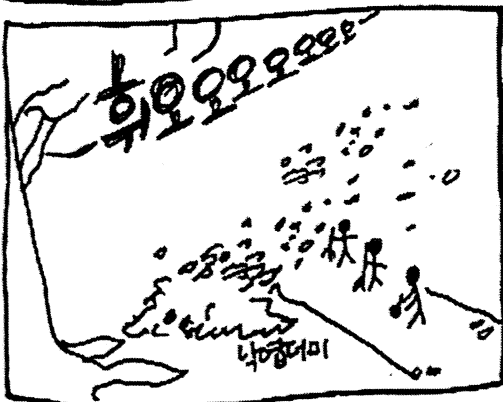


부엌방문



재미있었다. FIN

생심원 남매 살리기



... 오빠야 (오빠야)

다.

- 선생님 봉사활동으로
함께들과 만났을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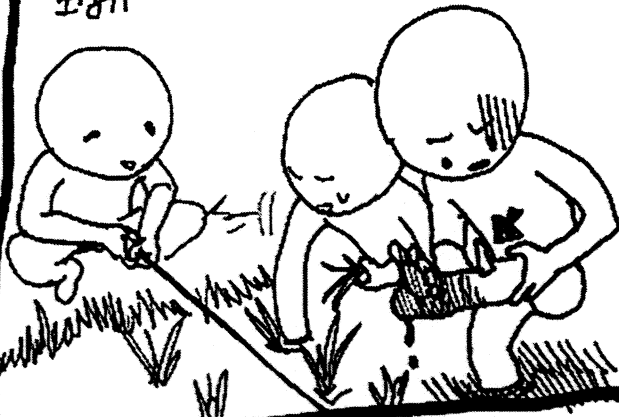
같은 학생이야—

간디의 한해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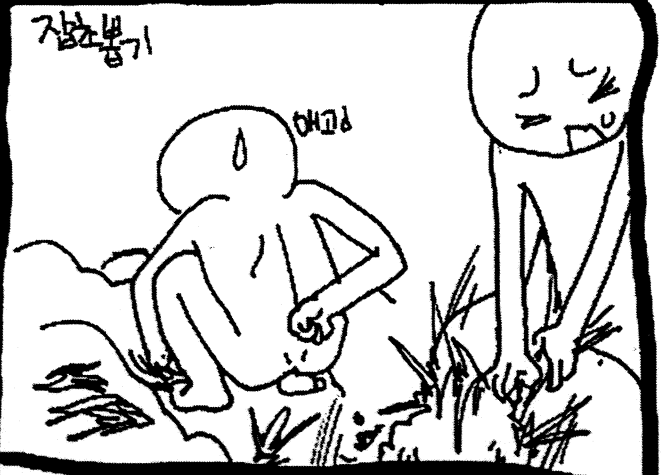
봄

여름

모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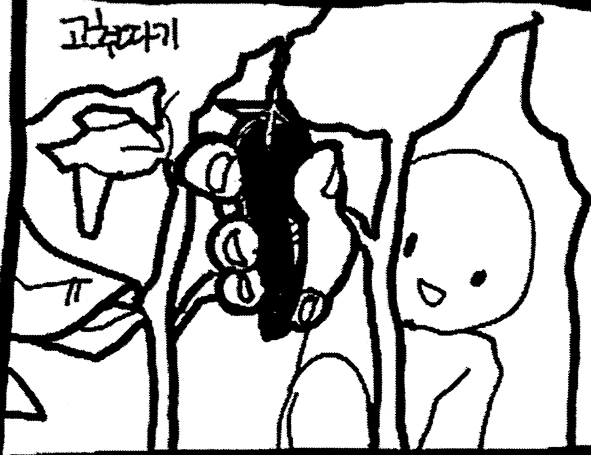
정초농기



배달이 사기



고려자기



벌레 잡아먹기



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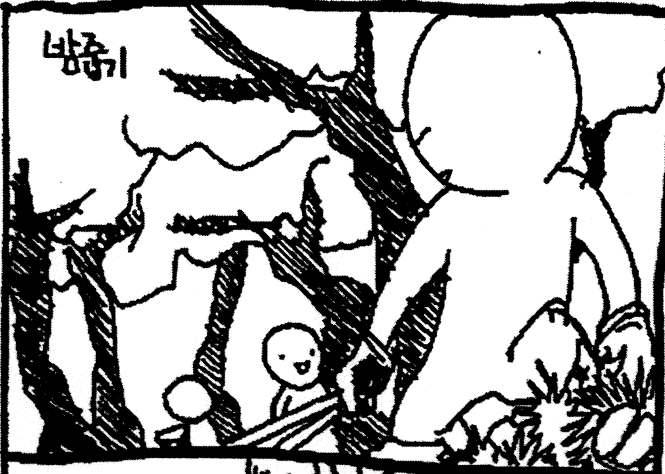


씨 뿌리기, 밭갈기.



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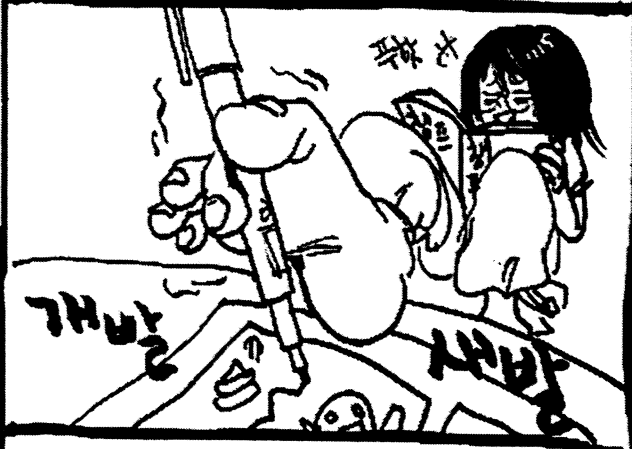
밤줍기



강따기



수확



콩나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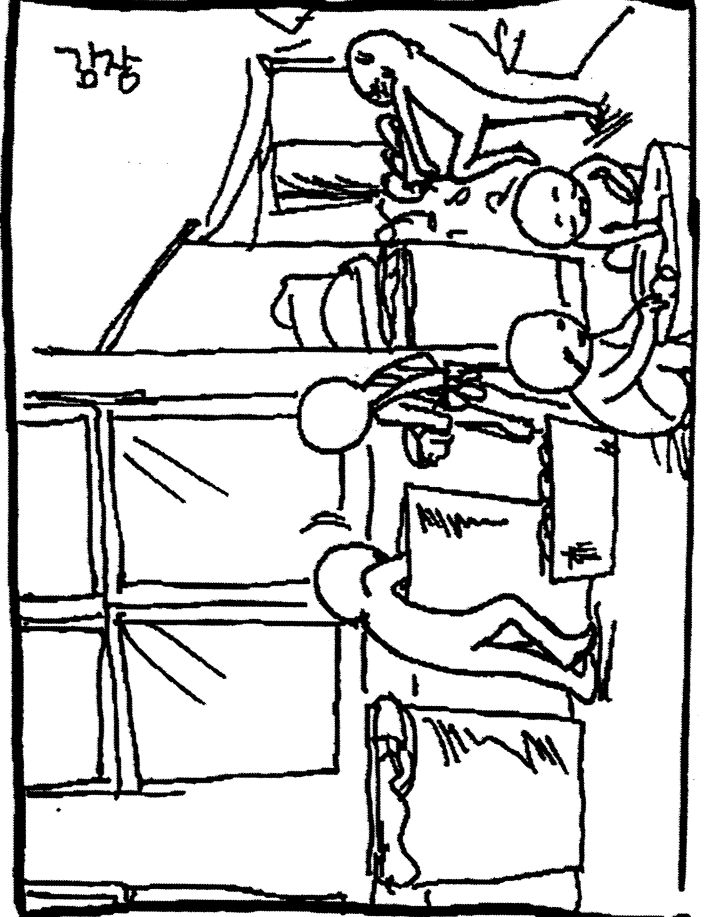


겨울

마늘삼키



강물



1학년
첫차시안 풍주.



산이꺼서
빨간기
어두워
지나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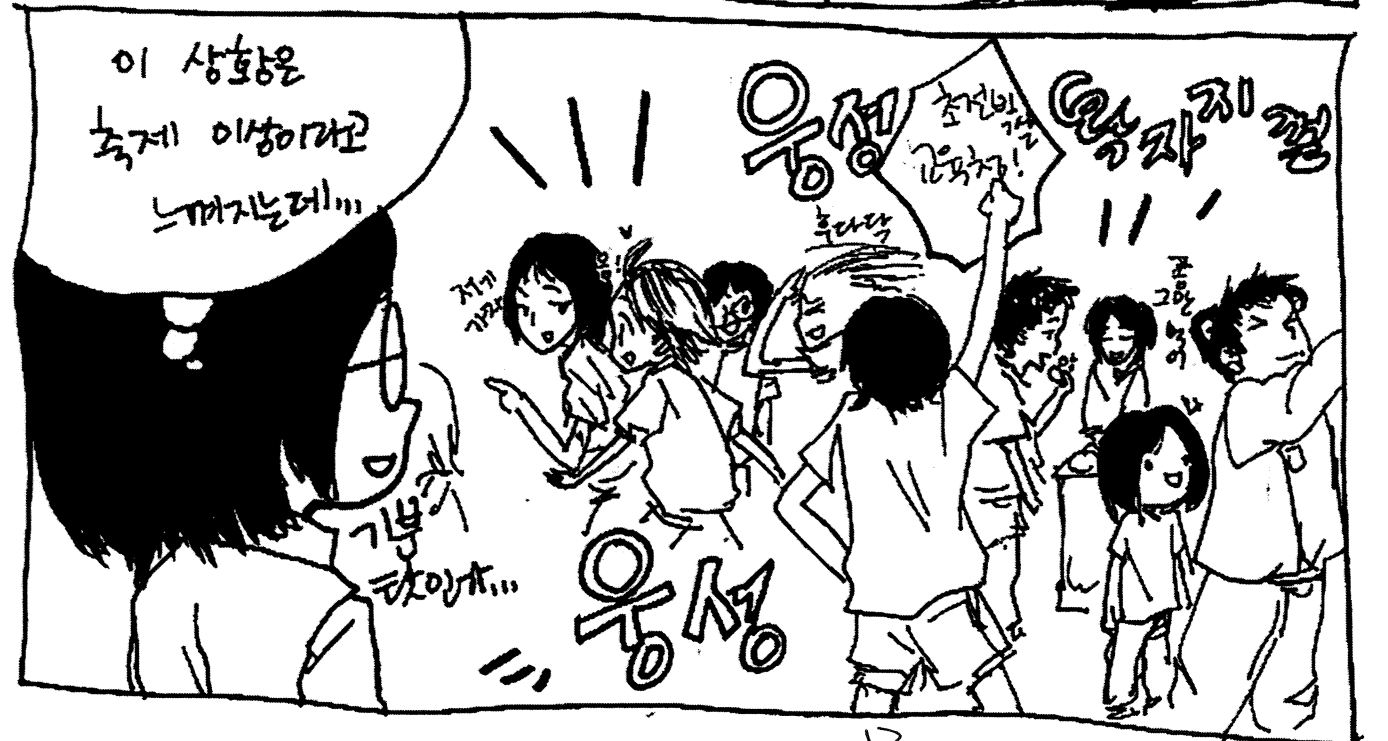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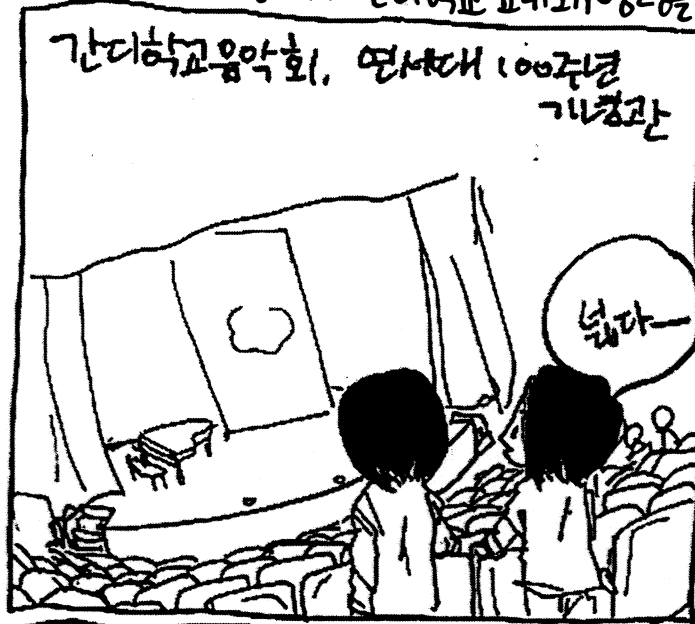


몇시간 후, 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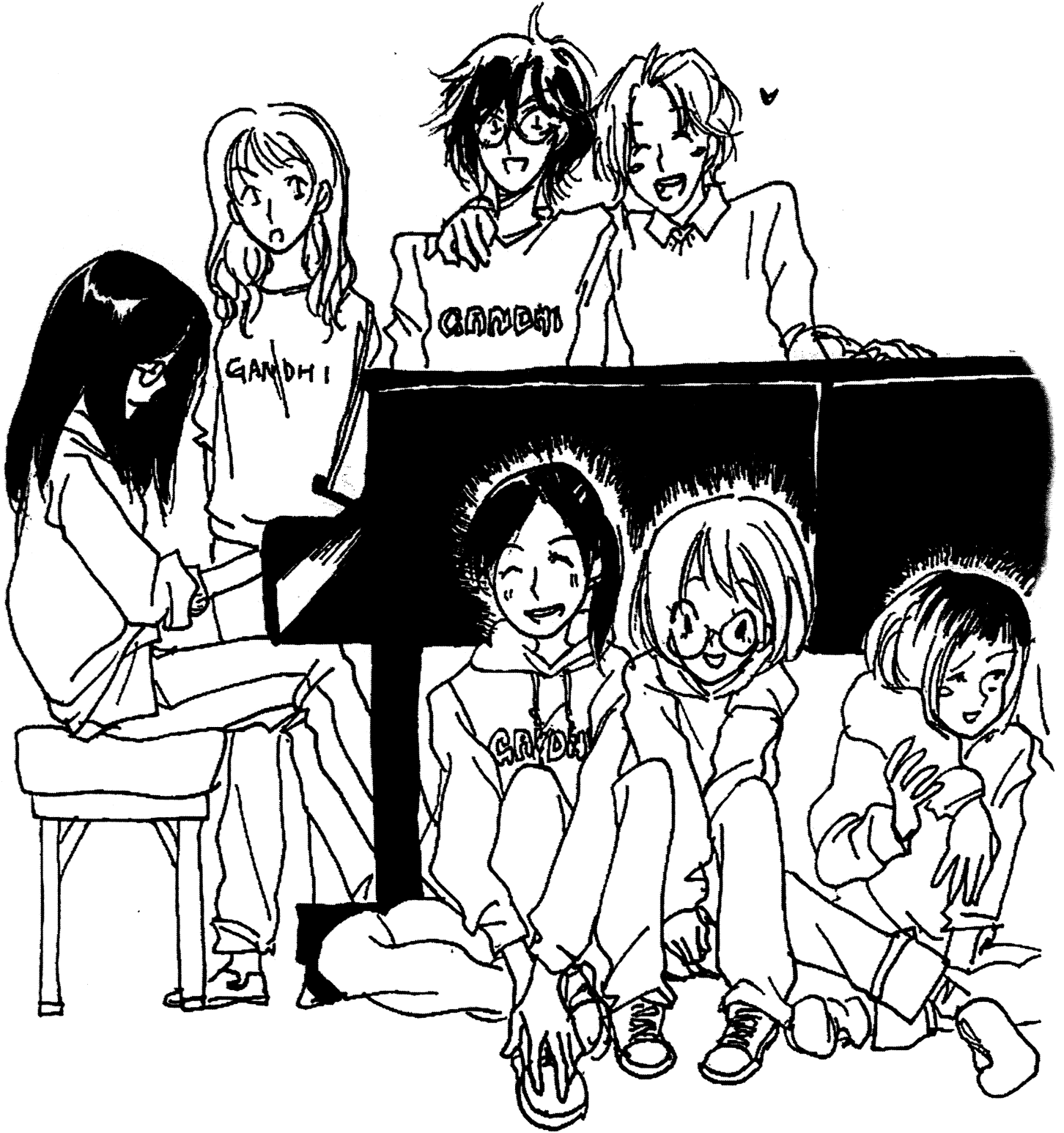
가방 맨
안쪽에 들어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간디학교 폐쇄명령을 내렸다.



♪ 꿈꾸기 많은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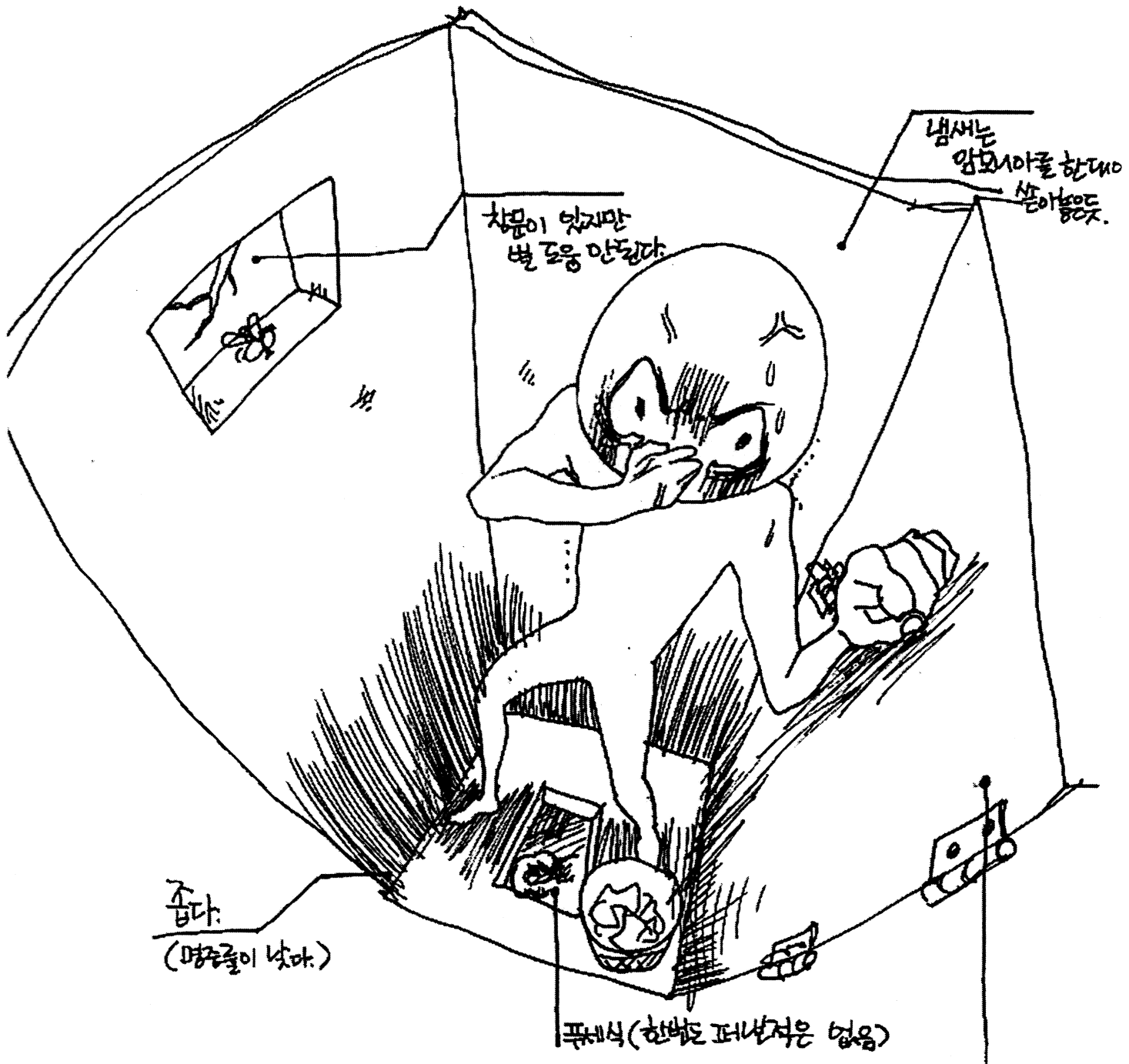




2002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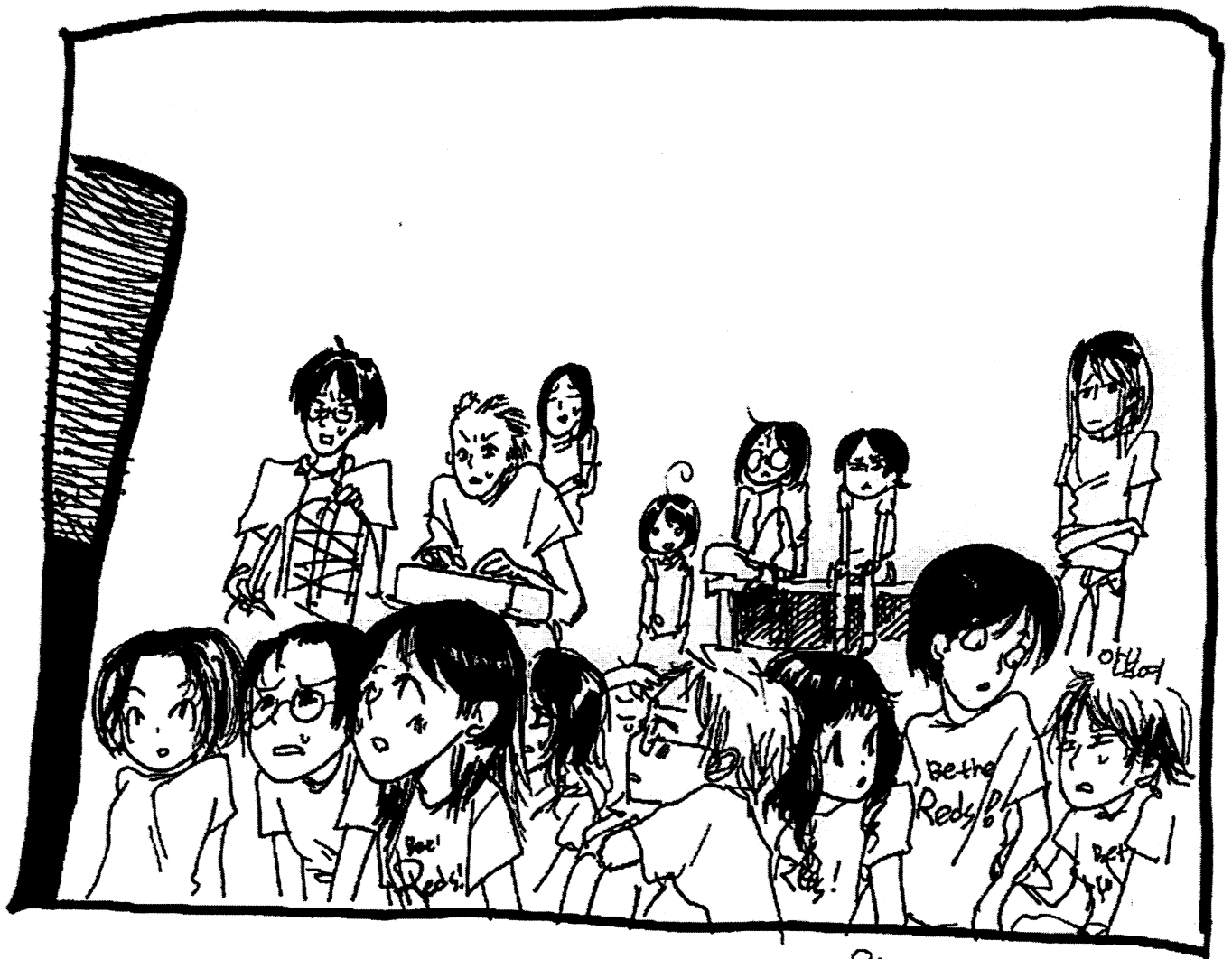
The playing in 단절





**그런
화장실**

문은 잘 열리거나
잘 안열었다.



인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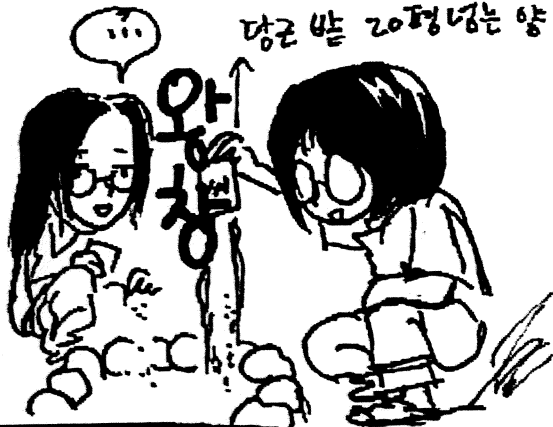
원정기

온바른 재배 (특집)

등장에 있었을때. 미술수업을 식물을
키우면서 관찰일기를 쓰는 것이 있었다.



나는 수연이와 함께 당근라히브를
심었다.



열심히 물을 주고 잡초도 뽑아주었는데
나중에 그 잡초의 대부분이 허브사육임을
알게된다.



당근이 영만큼 자랐나 뽑아보기도 했었다.



어느날 수연이와 함께 수확을 위해
당근을 뽑아 나에게 보여줬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2만 우리들이 학교를 옮겨버렸
이 당근들과 허브의 성장을 끝까지 지키기
힘들 수가 있었다.



끝까지 잘
키울 수 있을테데...
하석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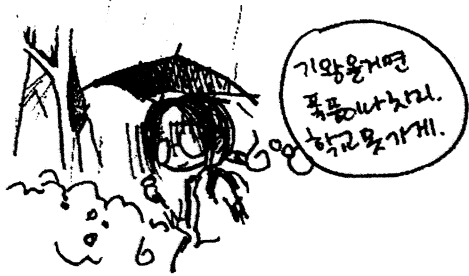
... 그런데
이이
전열
함은기
같은데...



FIN.

비

등교준비를 할 때
난 비옷을 입을 정의로 옷을 꺼내다가 실수했다.



먼저 평소보다 경이 더
있고!



산형산이 눈도 너무 많고.
(자주도 남)



실은 것도 너무 많이 비오고!



그런데 먼저가는 놈들 보면
자주 물어봐서 짜증난다



등교준비에 도착할 때
나오는 진흙탕도 만만치 않다



학교에 도착할 때
우산이 소용 없음을 깨닫게 된다.



F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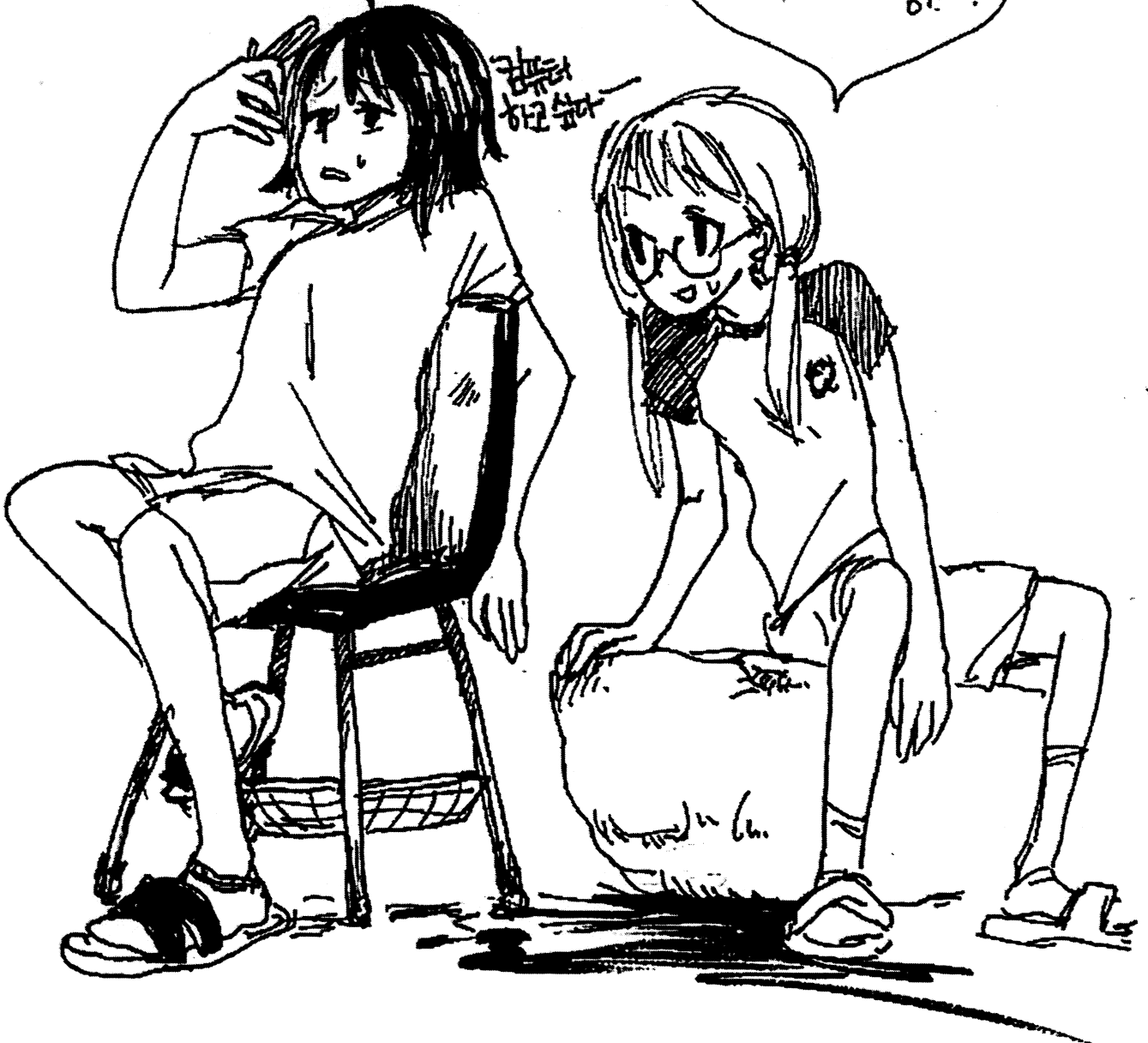
배꼽-

아-
역시
안 타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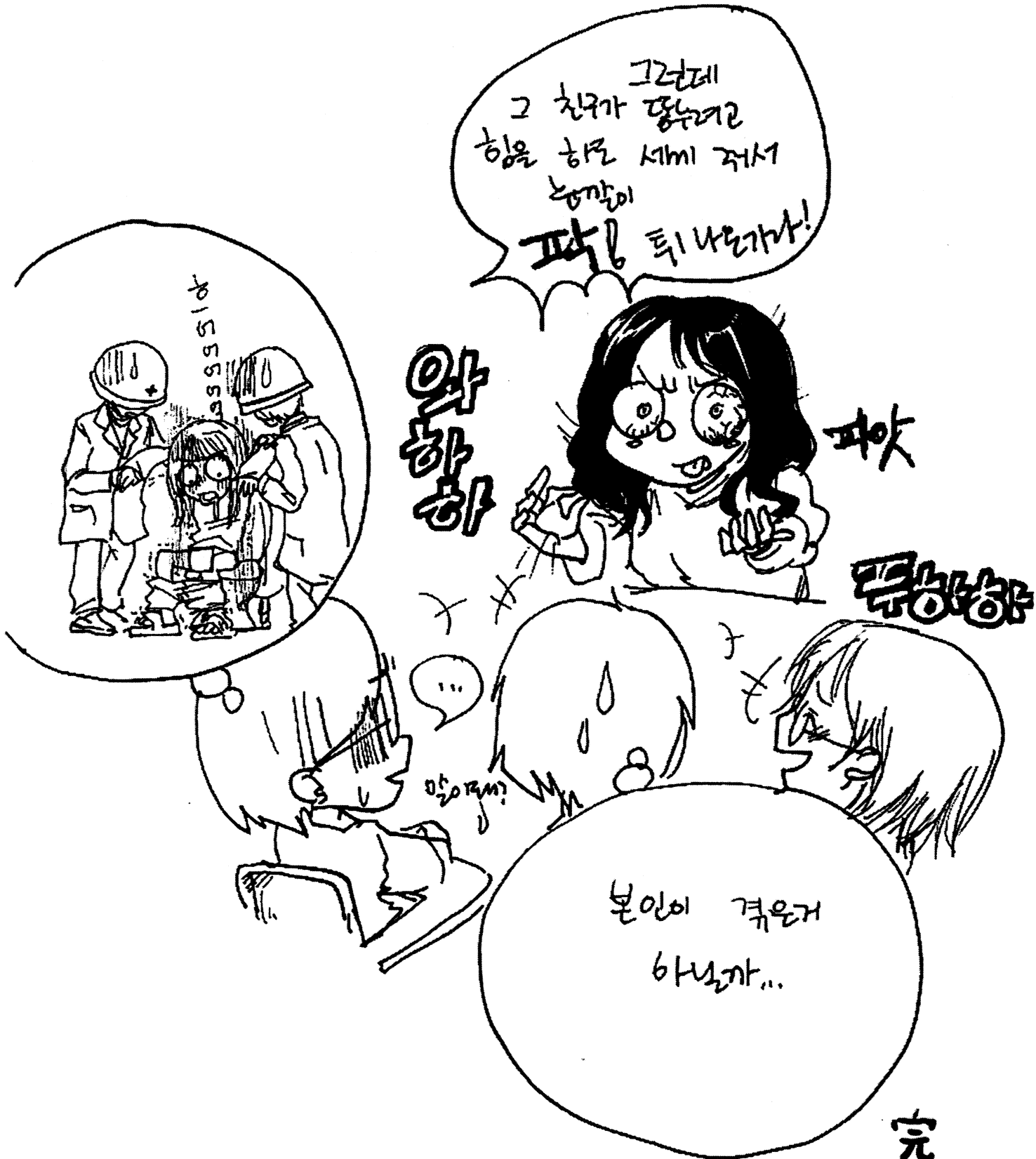
배꼽-

그거 그만
만지고
우래도 가서
술래잡기나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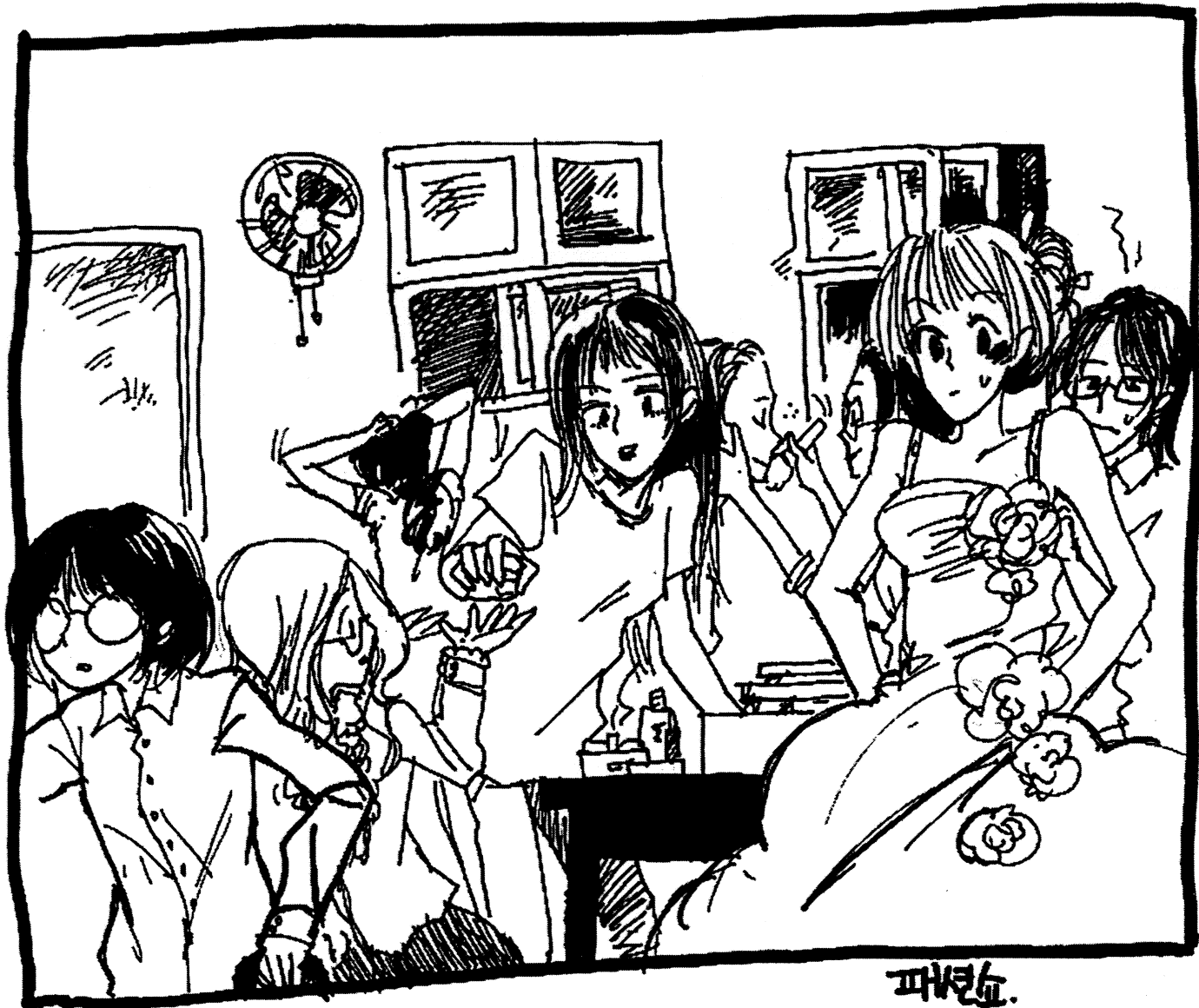
관심
하곤 했다-



영수
그
배꼽



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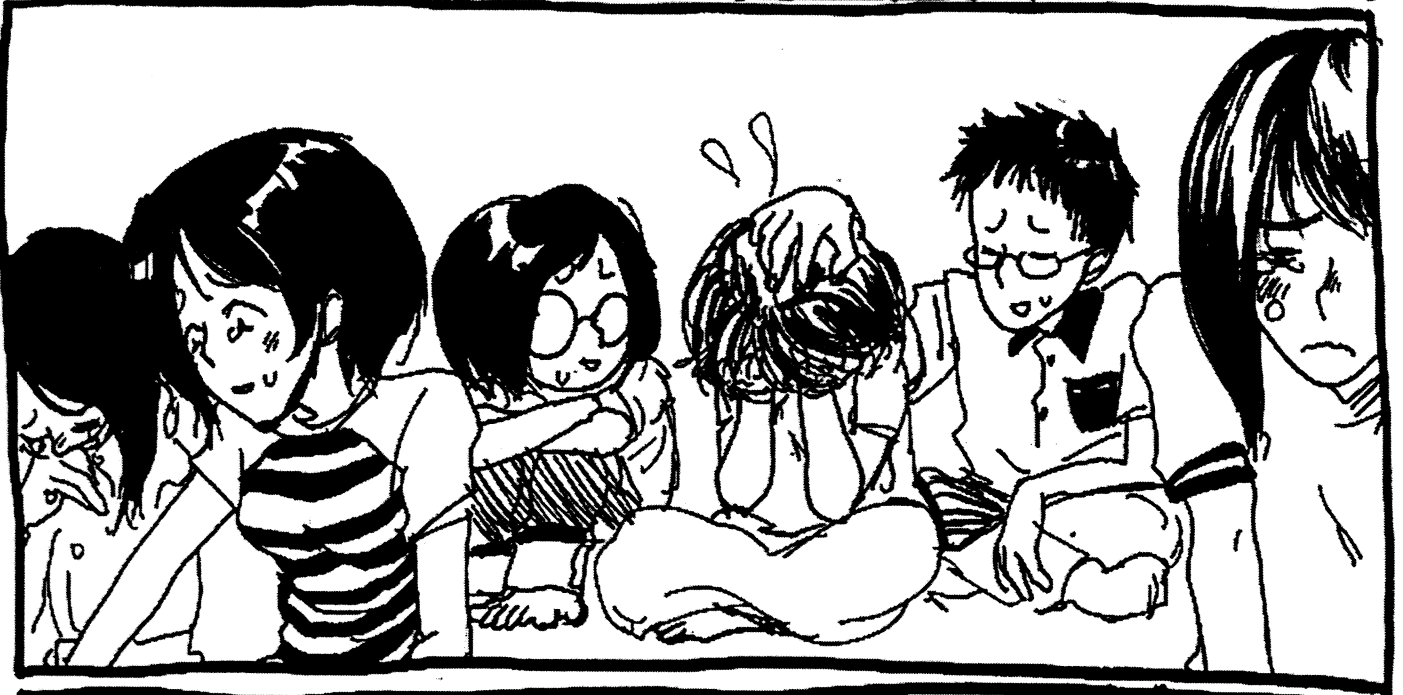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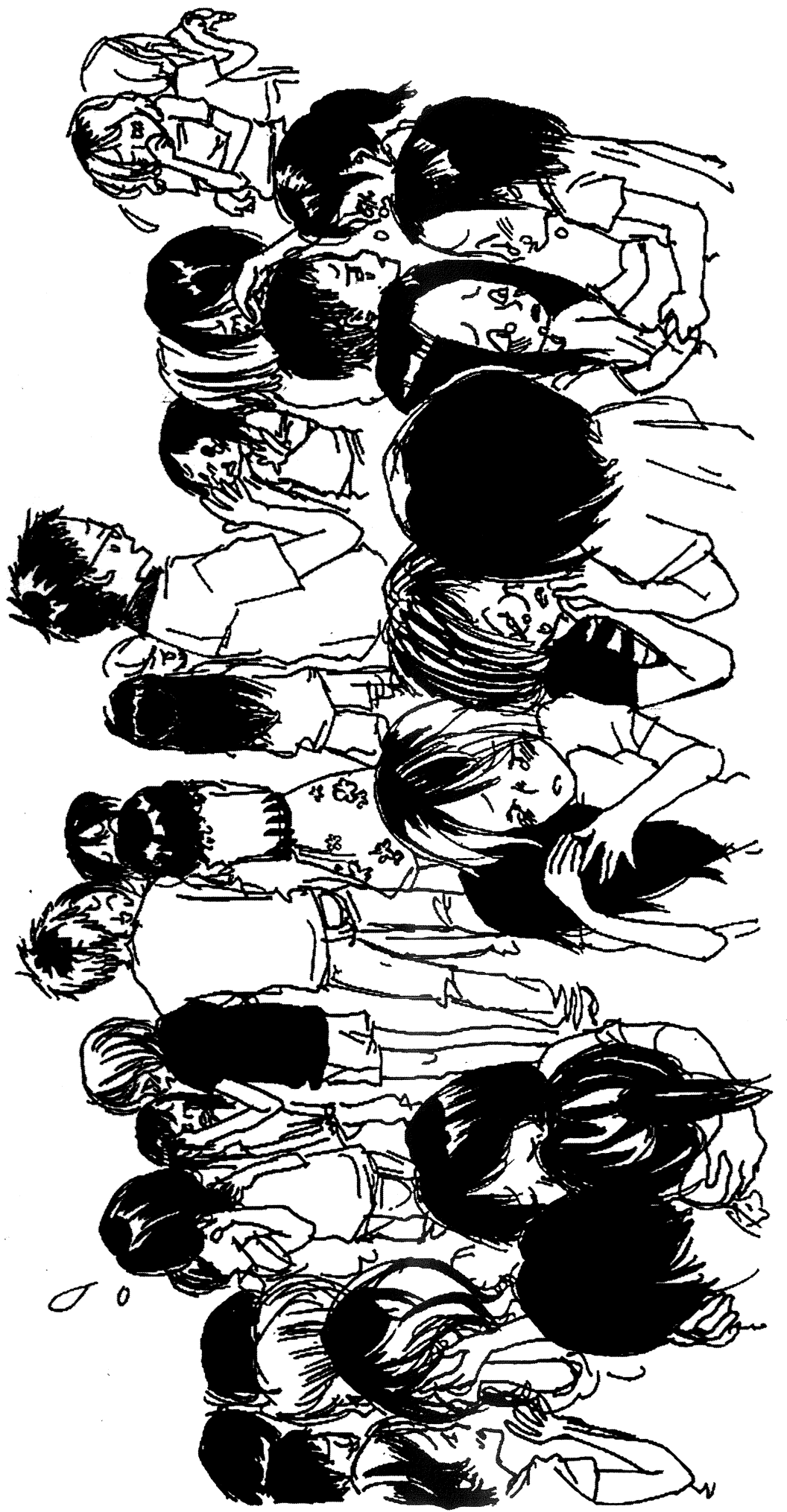
어느날, 뉘송 가는 길에서 기척사까지
새로 포장이 되어있었다.



「아스팔트가 묻은 길가의 풀잎」

2002년 여름.





(2002)년 9월 부터
2003年
제천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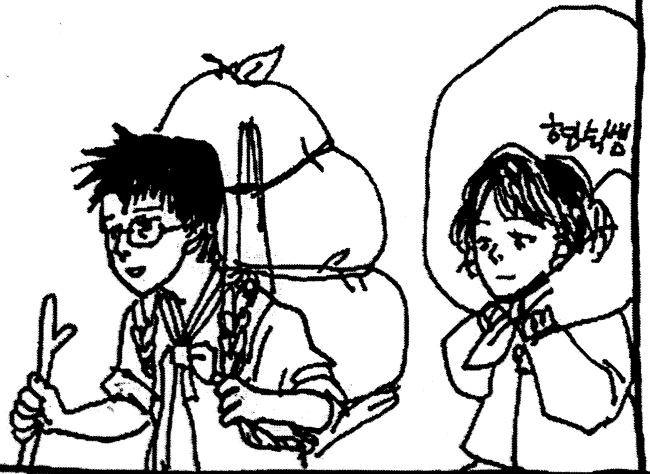


희상 쌤

야생은 우리 반이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제복을 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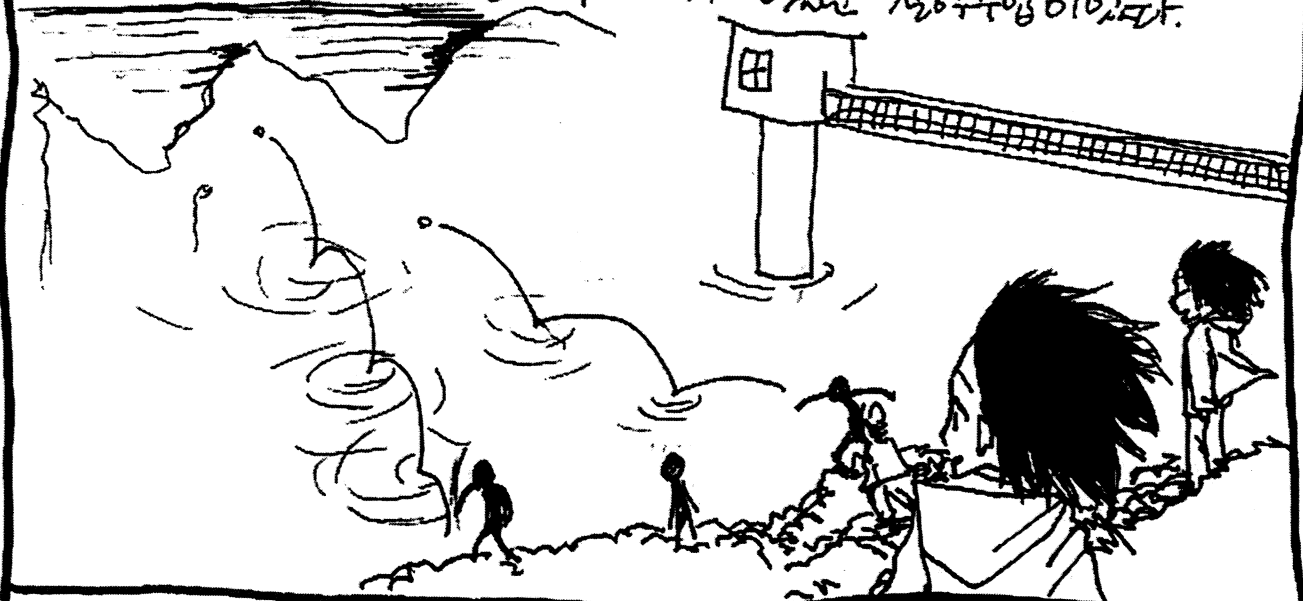
청하리목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늘 생각
에 잠길 수 있게 해 주었다.



우리를 잘 이해해 주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은 계속지어서 했던 청하리수업이었다.



감장

첫째날, 무릎 꿇고
배우는 소리에 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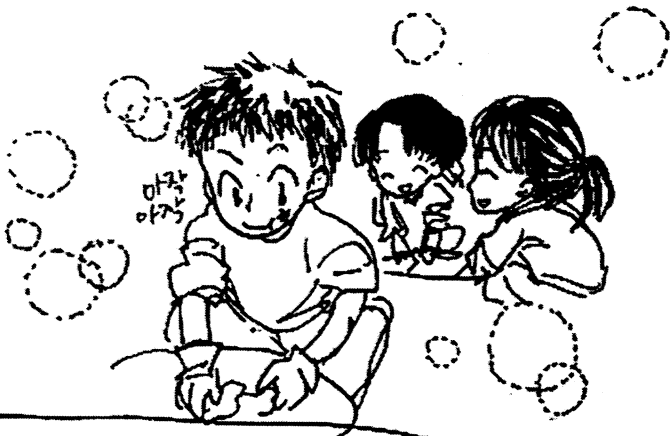


둘째날, 배움이 속을 넣는다
서글에게 먹여주듯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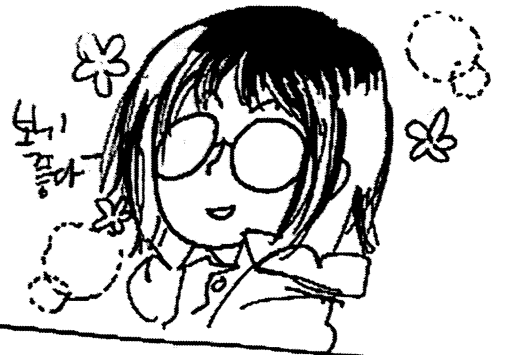


*누가누가야 하는 문리는
사뵈합니다.

우리가 먹은 감치를
우린들 스스로 직접 다그는—



이것여시
감찰하교가 추려하는
그 해버어 수업이라고
함 수있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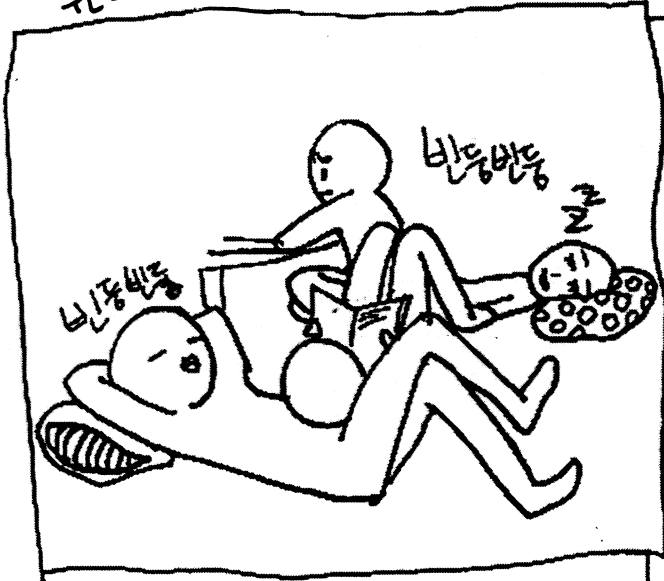
그럼
너도 좀
도와.

어제 육감 배주
수질 했으면 했지—

틀라하는
아이들도 있어
...

F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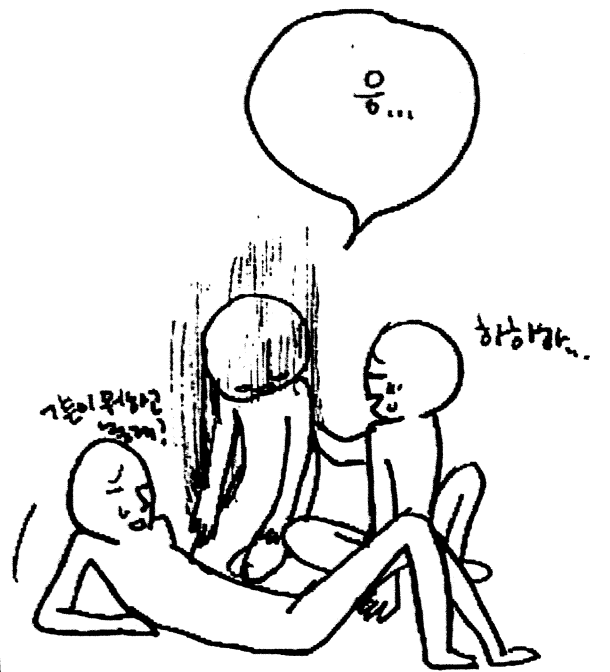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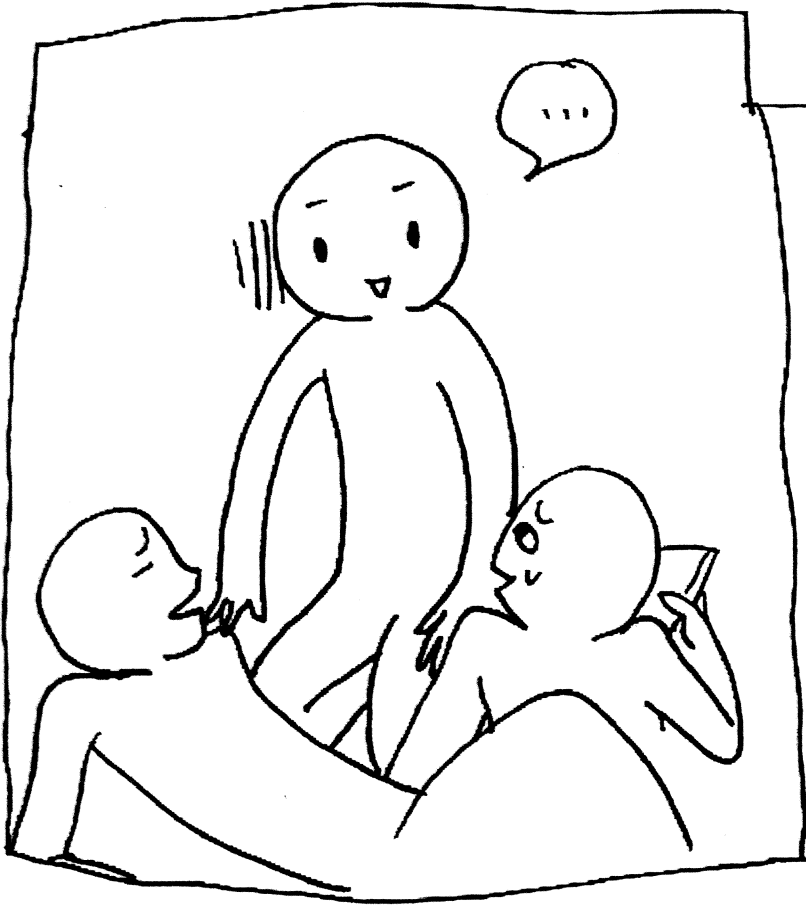
권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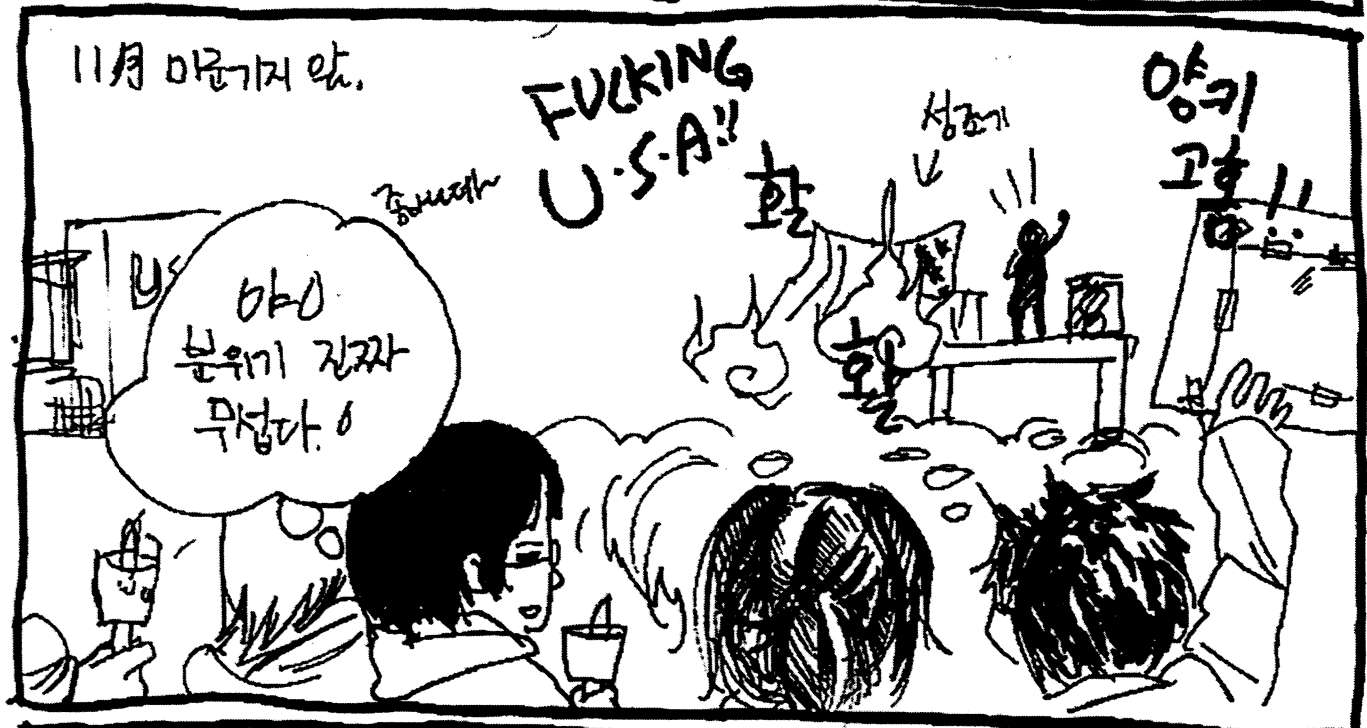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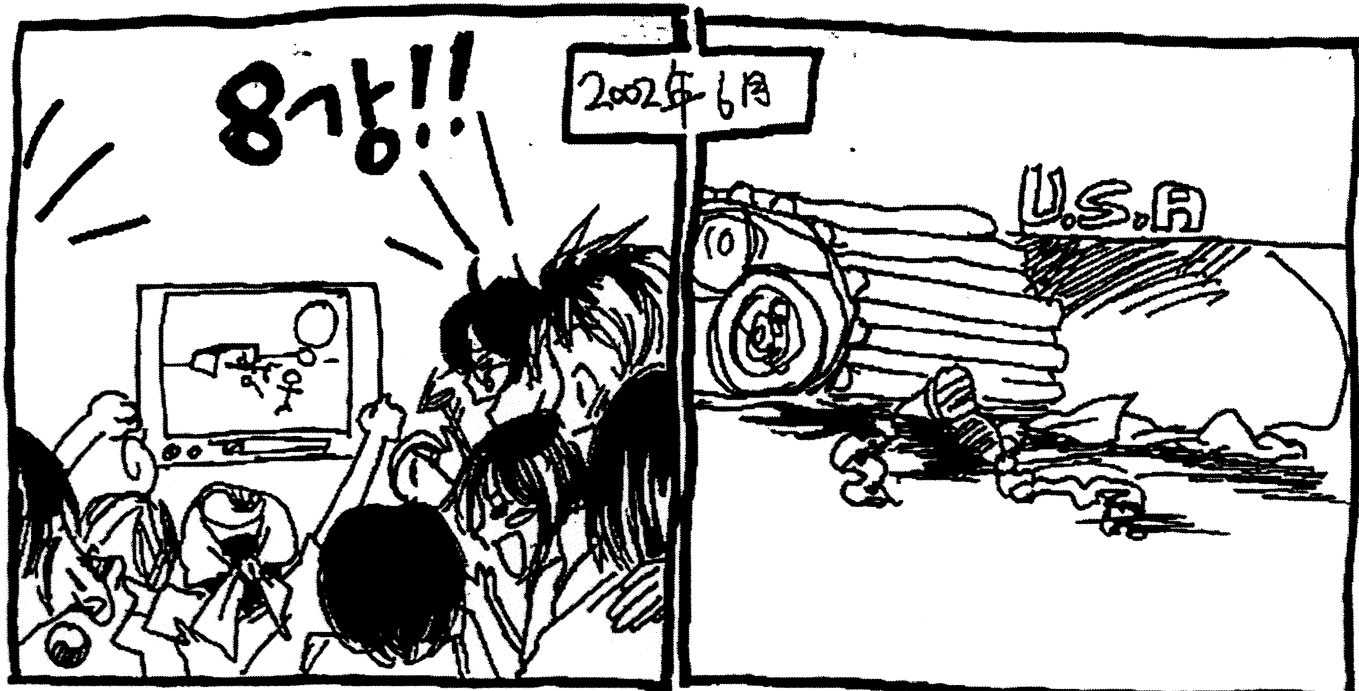
이런 것
있지만 말고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생각하자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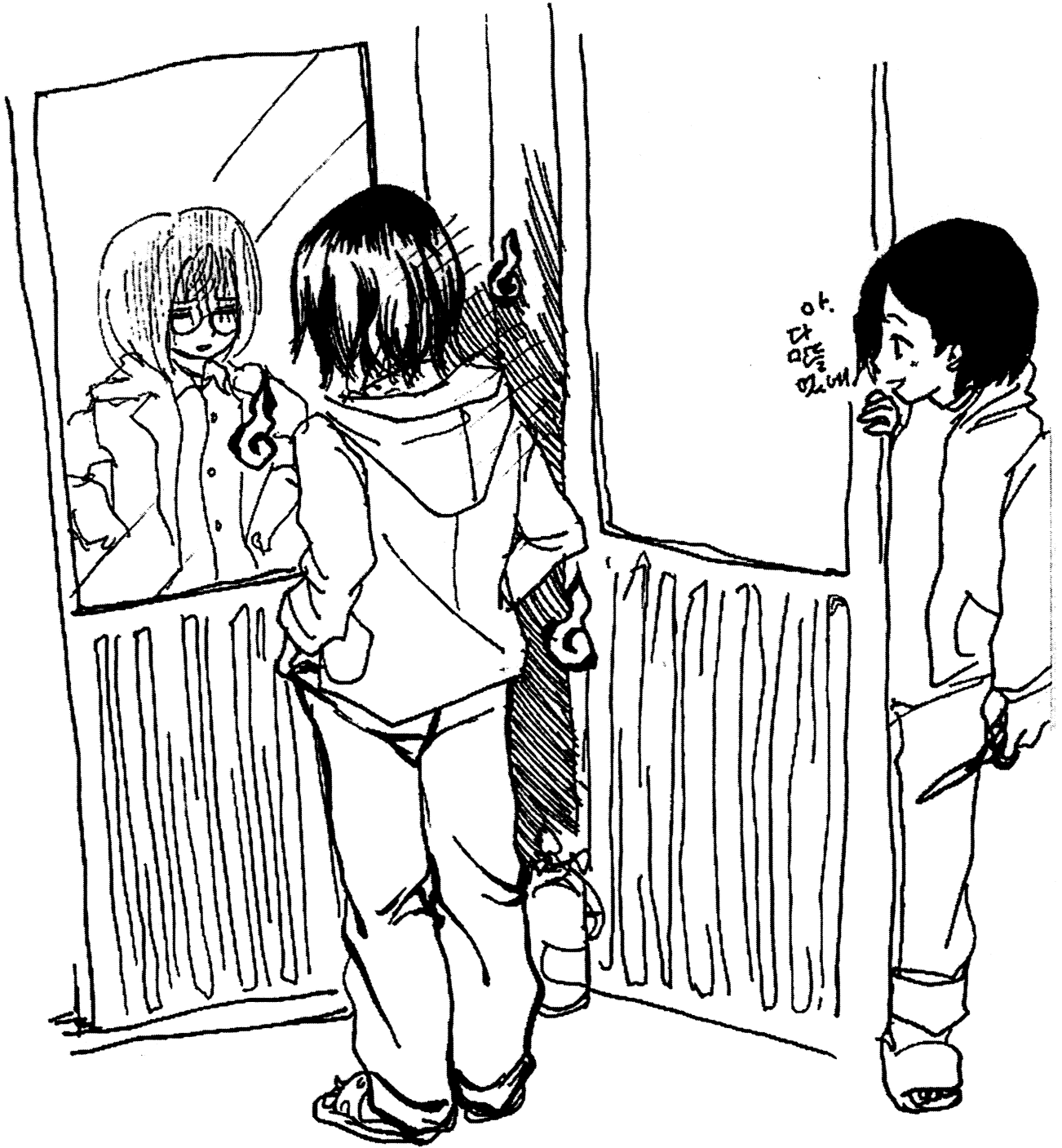
29-0



이상대반사.
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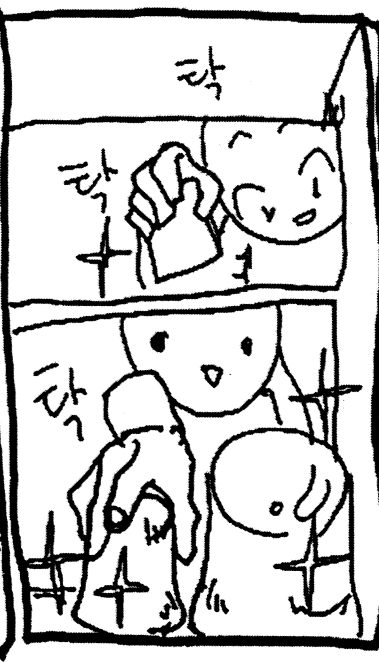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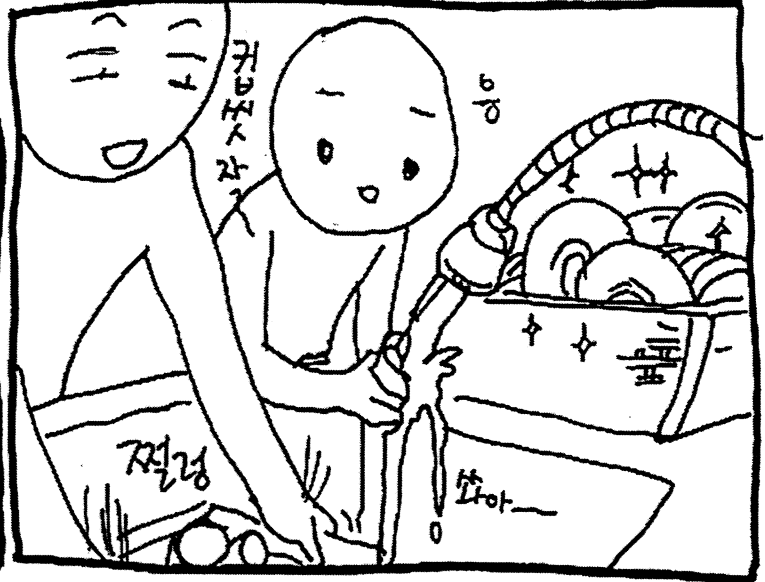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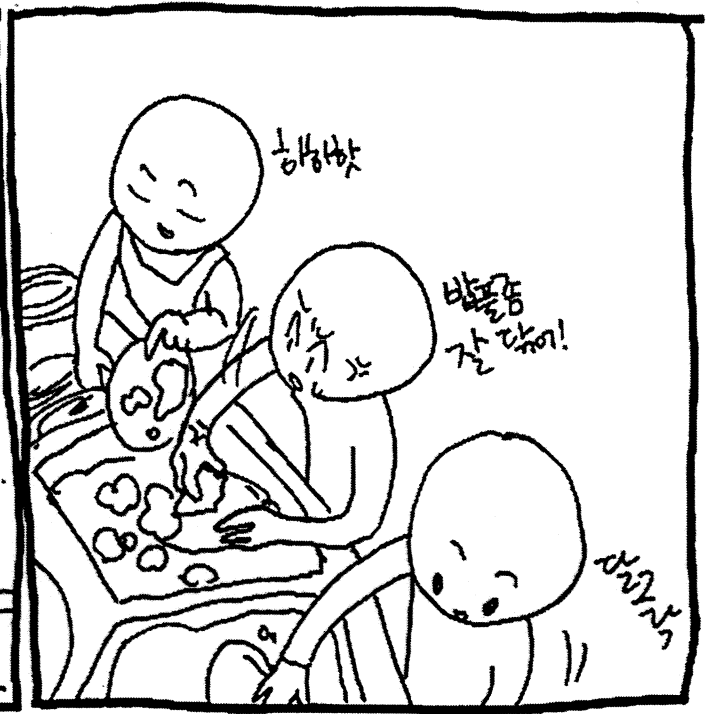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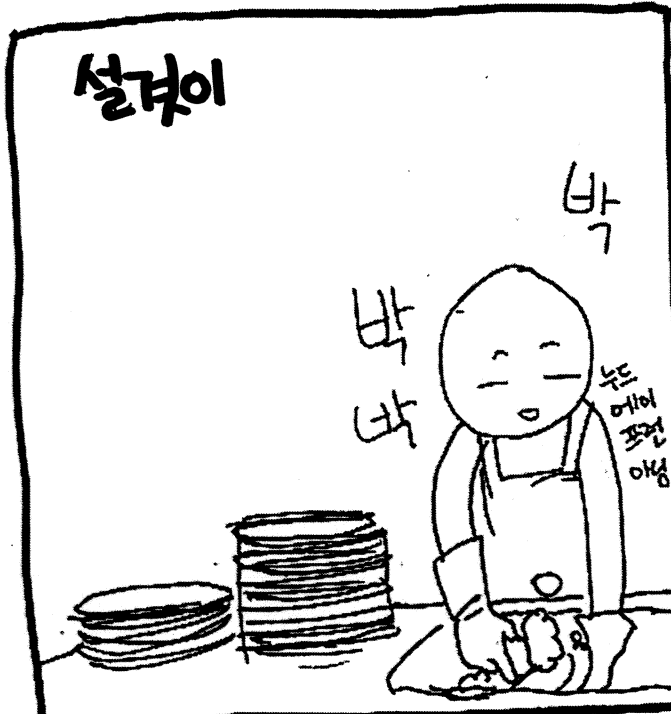


잠 다 ...



내가 만든 옷을
안 만든 아유.
FIN.

살결이



♥ 휴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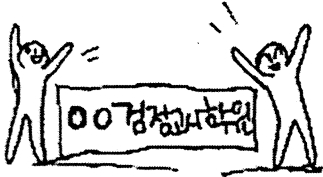
3학년들이 촛불 들고 하트모양으로 서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웃으면서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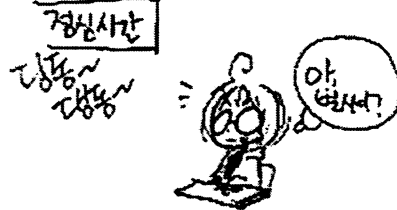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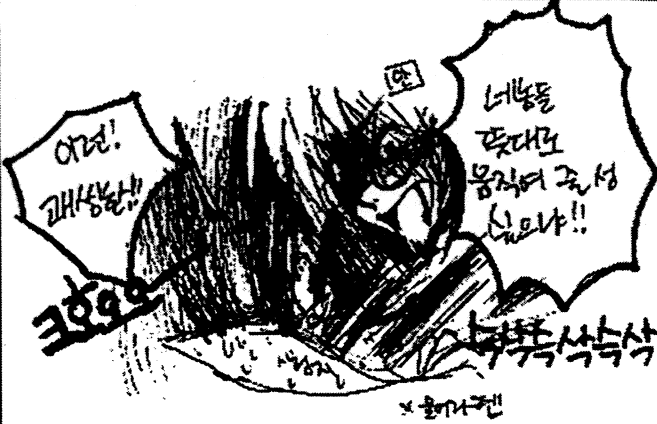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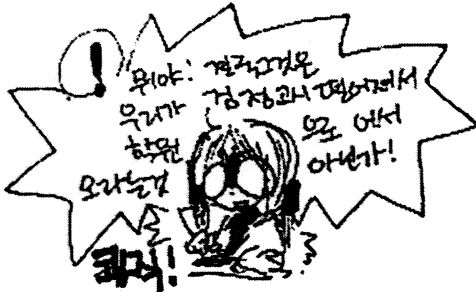


검정고시

2003년 4월 5일. 검정고시



올라가는 길에
저마다 자기들의 학원으로
오라고 난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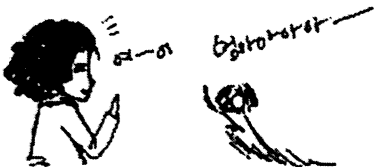


정신을 안정 받으려고 교정을 돌아다니는데
일반학교 시절의 친구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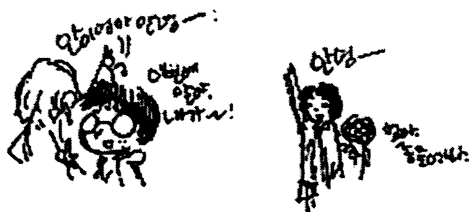


오히려 과학수험은 너처럼 잘 아니었어
문제가 엄청 쉬웠잖아. 누가런지 갖고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다.

검정고시가 끝나고
운동장에 가보니 영아가 있었다.



영아도 만수무강하게
하버만 두사람 다 표현 90은
넌을 거대한 자원으로 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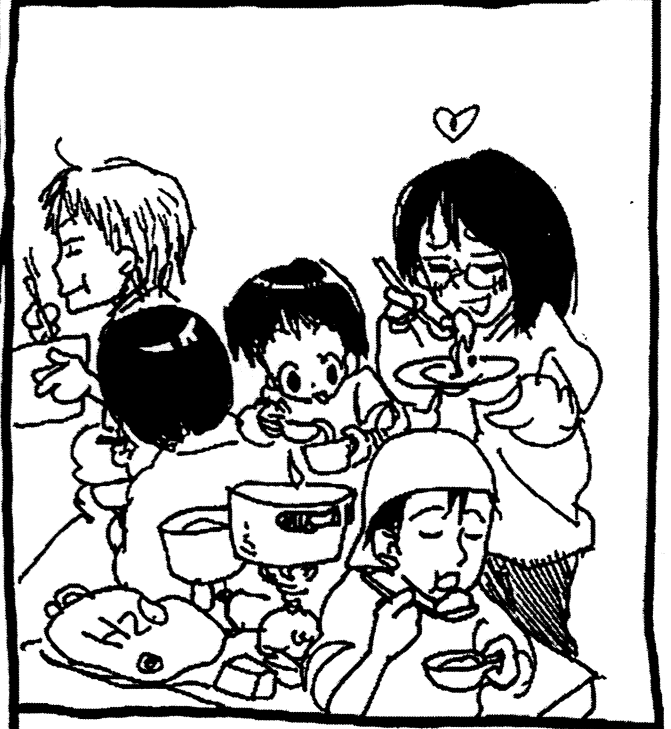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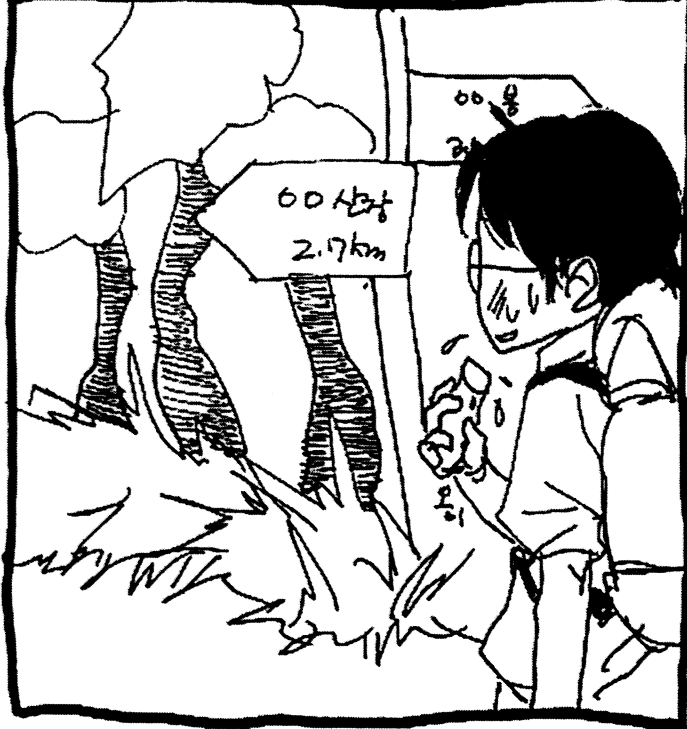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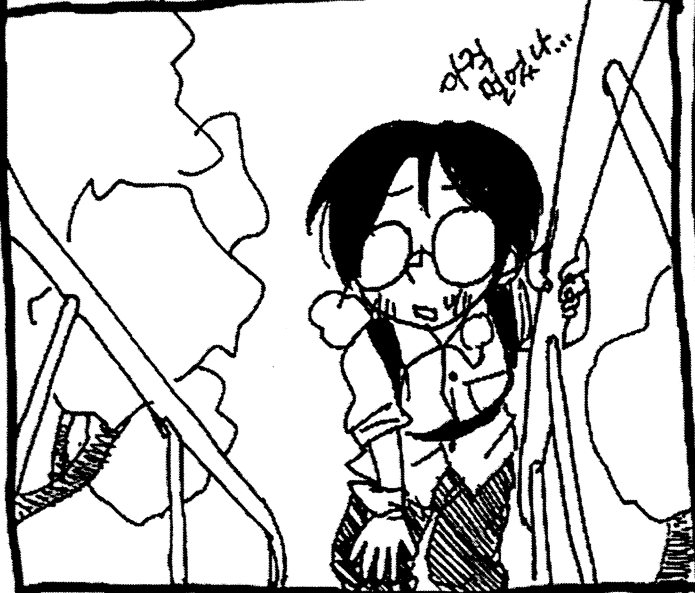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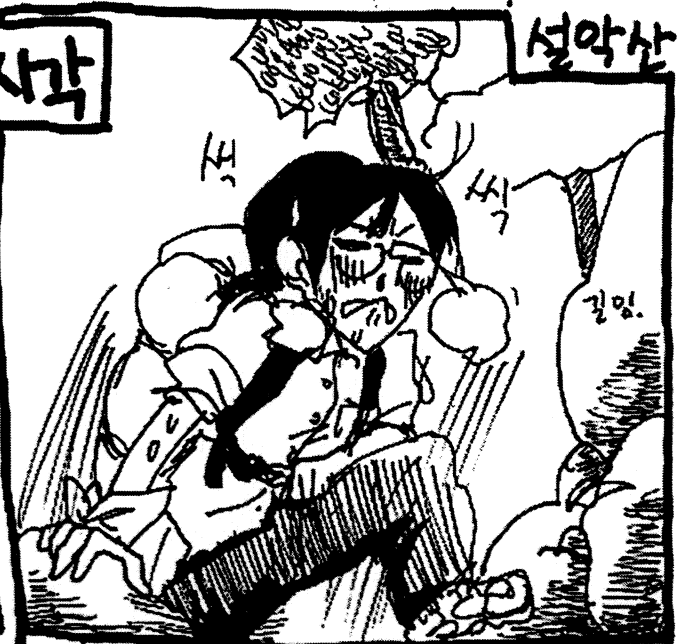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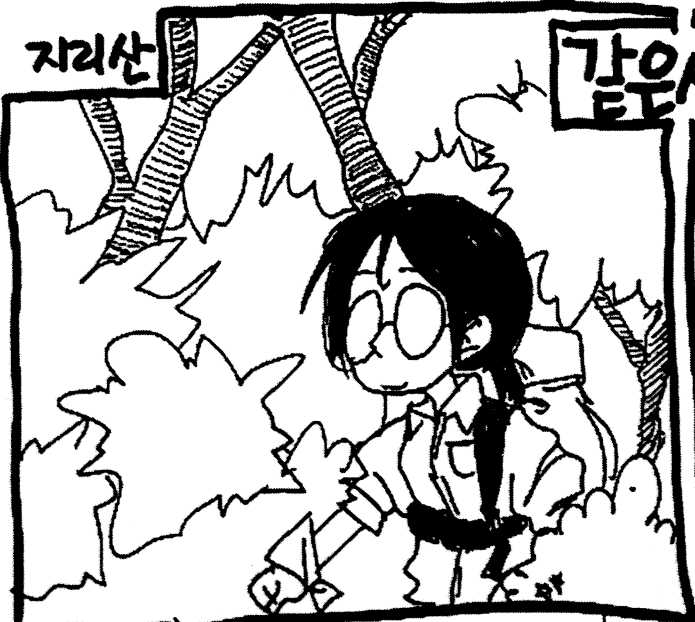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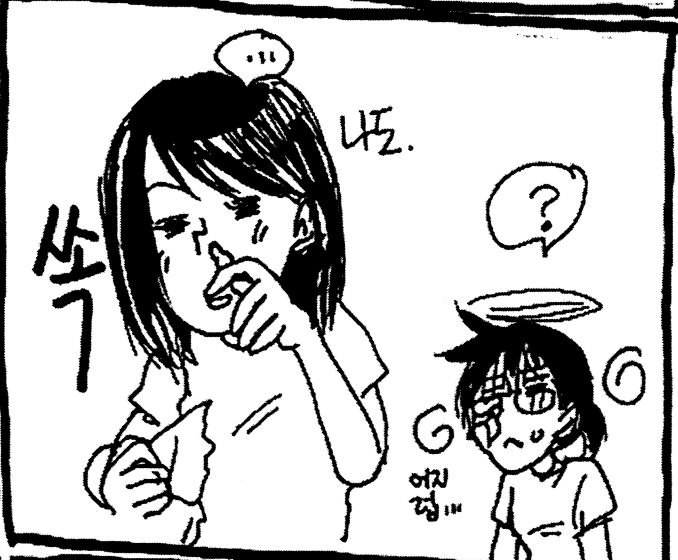
지리산

간이사막

설악산



정성봉 올라가는 길





달그링자.

同床異鬼

중국여행 중. (두라미들이서)



진하게 화장하고 장모님 많은
여자 귀신이 사요...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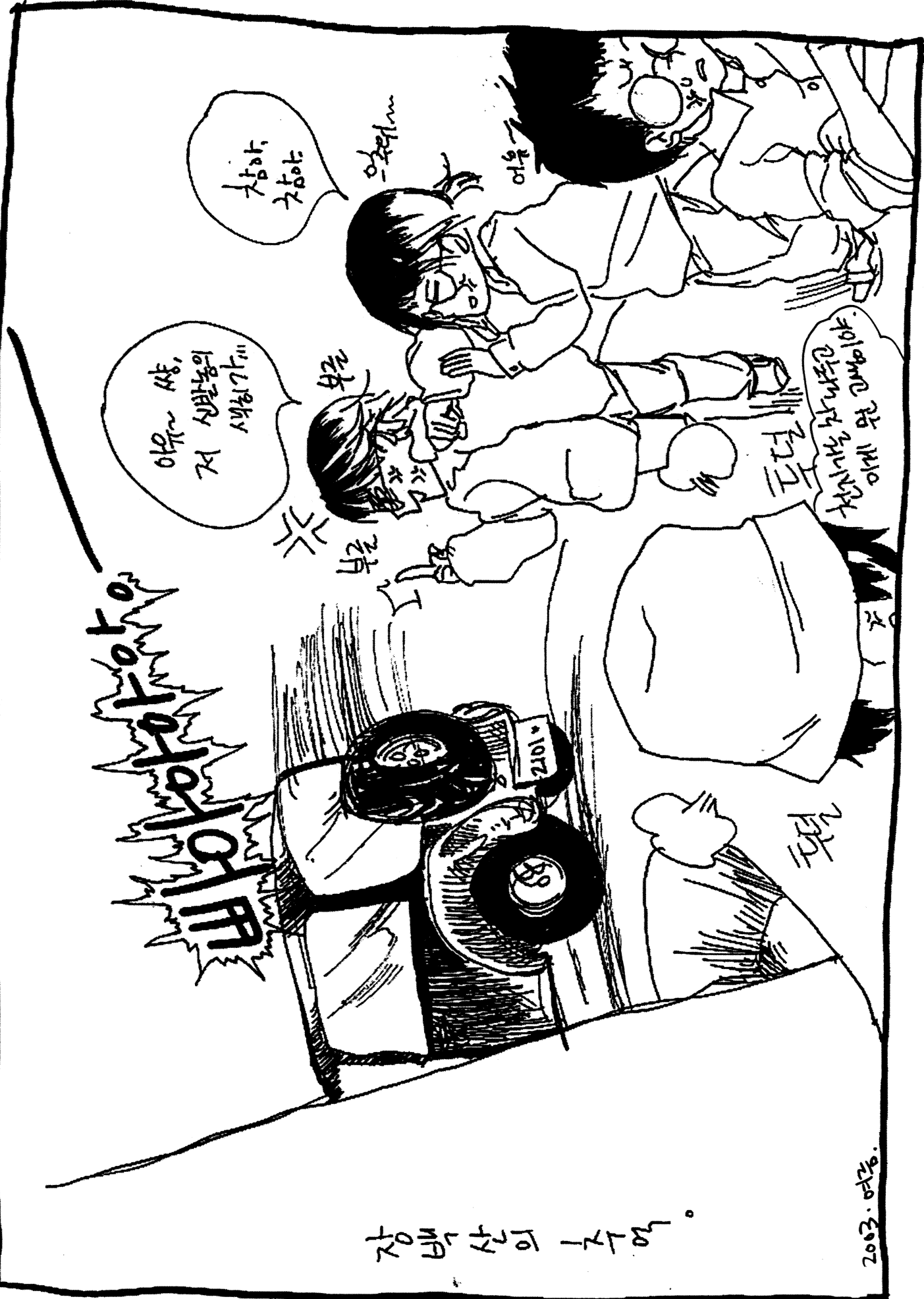
산악의 여왕

아무~ 씨,
저 산악부의
새형기!!!

참아,
참아.

산악부의 새형기.

2003. 01. 26.



양민감
치기



1.10.14

90

2003년 3학년들 마지막 여름방학의 감상.

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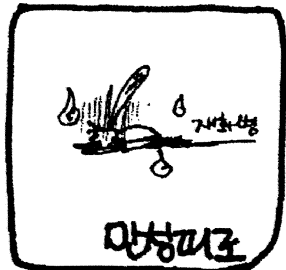
한별



기병



재화



현우



성기



인영(안영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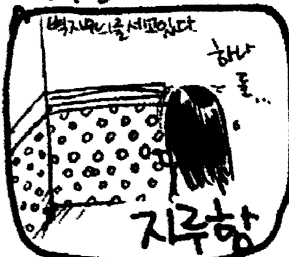
안



수연



한민



소은



하은



도솔



창민



건우



영희



도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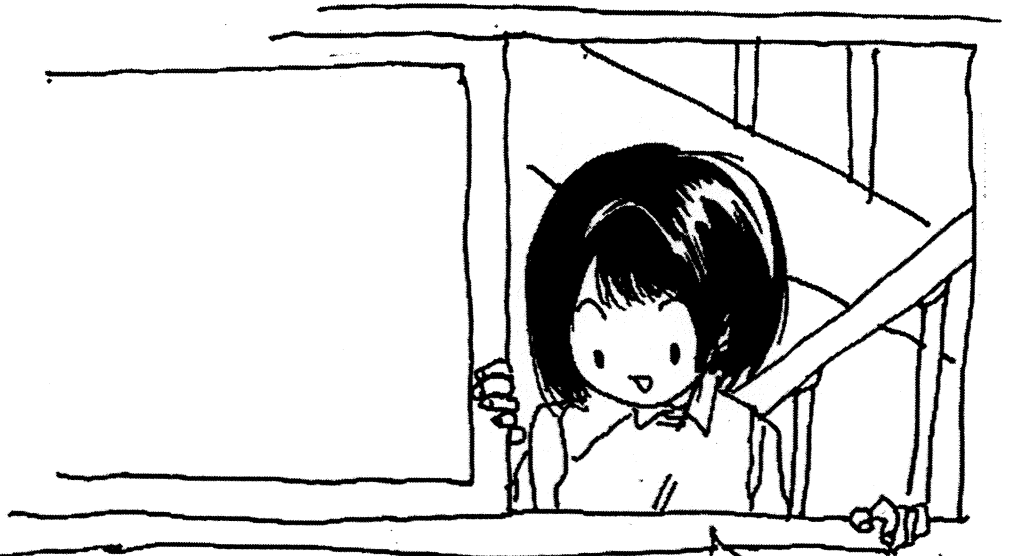
나환



성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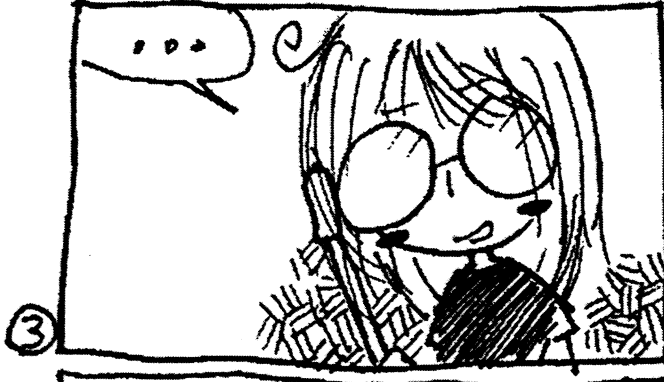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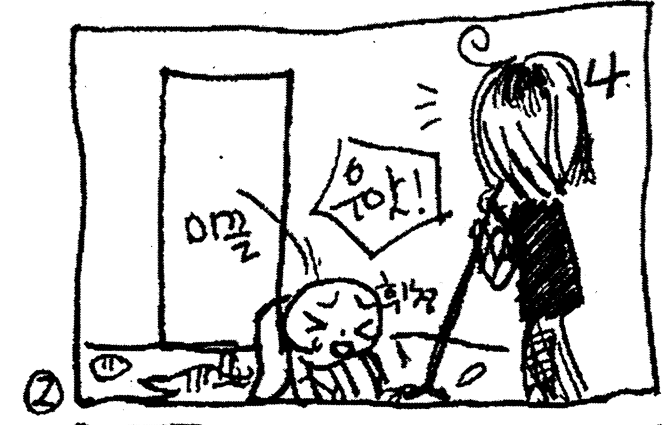




바라볼때
무슨 결정을 하셨는지.



아름다운
다들려고 하는데
가슴만 두 양이
이런저런 넘어갔다.



← 재밌다.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

FIN.



아침부터...

단식 풍경





나...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아... 해지야... 못말랄라는데... 움직이면 안돼... 가만히 있어.

아~ 나...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아~

하하... 하하...

... 준거워 보이네...



P. H. H. O. P. O. E.

죽을 여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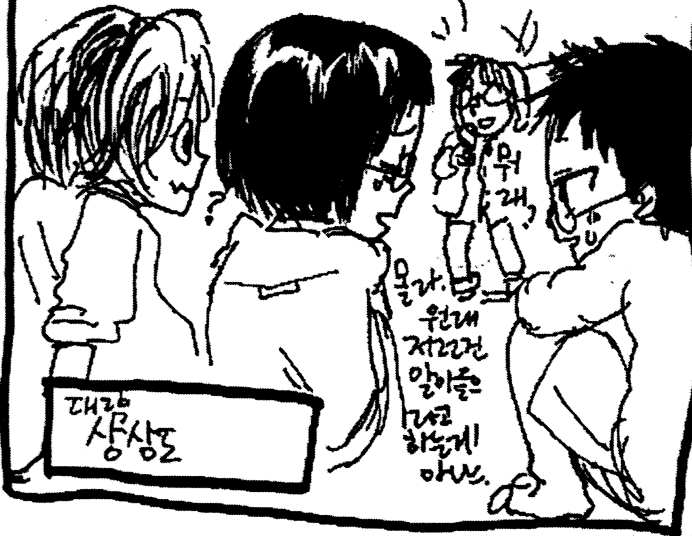
3학년 2학기, 나에게서 마지막인 죽을 여는 시간이 왔다.



그전의 발판에는 껌노래를 틀어서 이번에는 발판을 하기로 하였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지막은 나의 사랑을 내 시골에게 전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청성을 다해 발판하기로 하였다.



... 나중에 사랑해 보니까 그날 내가 돌발 사회자였어!

그러니까 저앞에 내가 나 발판했지!

원래 사랑해 보니까 발판하게 아냐.

그후엔 하하 발판 없었지!



그날도 안아냐. 끝

회의



FIN

간담

간담학교에서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간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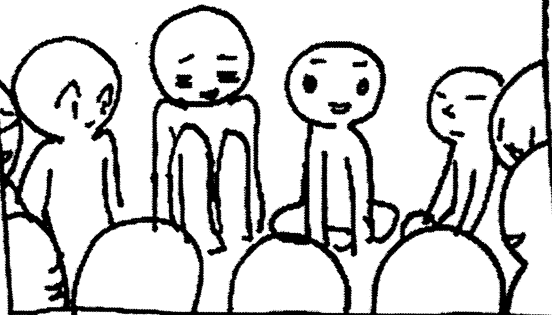
간담학교에서 보니 참새나 양봉하치
양이면 하루에 몇번은 싸움이 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싸우게 된다.



물론 양새가 양새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에서는
아이들끼리 간담을 하려고 하는
대부분이 장이 자주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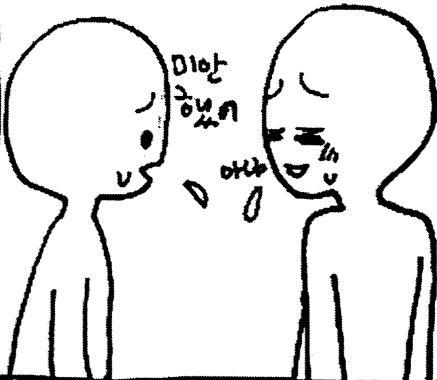
그중에는 몇가지
유형이 있는데 단정형
전반 이야기
한다.



좋은
하루
만안한다.



그런 후에
화해하는 양이



사이가 그대로이지더
나빠지는 유형



네까지 다 섞인
인간도 있다.



FIN.



심리상태



어느날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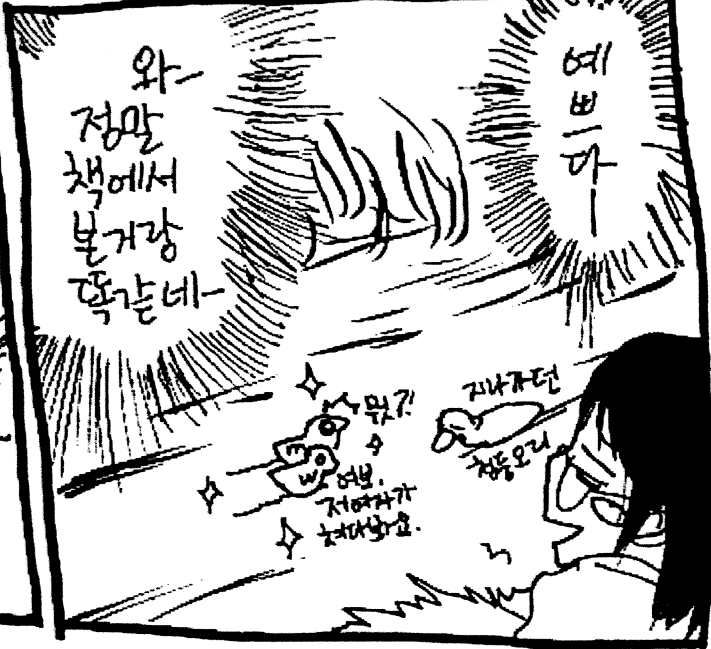


앗!
저건!



원앙새
자랑이야!

자랑이 없습니다.
대량 원앙새가
칩니다.



와-
정말
책에서
볼거랑
같네요-

원앙
새

기대하던
원앙
새들이
저마다
자랑을
하네요.



앗, (천둥소리랑)
똑같은애.

푸드득
기쁜
새끼
가자.
원앙
새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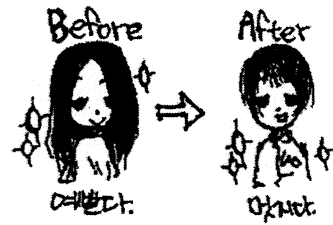
그냥
떠라
놓아준다.

추하잖아.

원앙새를
보았다.



중어비드 유리양(권)
미남美男이다.



더불어 몇몇 여학생들,
「위험한 세계」에
빠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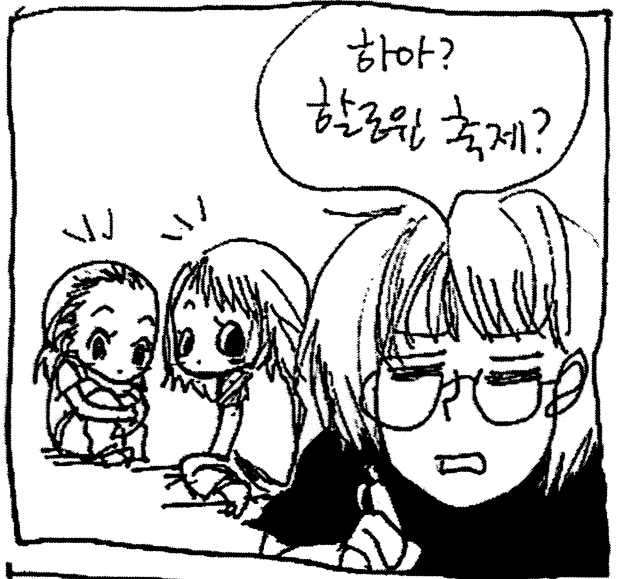


첫. 좋겠네~
절교 예쁜것들후~(빠따)

노동개선운동가들



제3권 1화에서는 할로윈 데이에
할로윈 축제를 했다.



End

선배 - 1



FINO

취침전.



생명의 기쁨

우리나라에선 집에서 오는 편지보다
인터넷에서 구매한 CD, 오디오 등이 올때
기쁨이 더 크다.



최근 나도 책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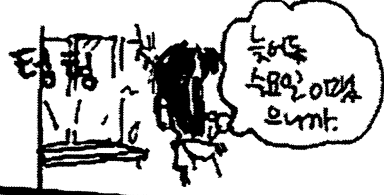


도쿄만에
주문량이 늘어도
이런 수요량이 올라야

그러면 나는 화요일, 매니 필요일때
두근거리기 시작한다. 책을 내보낼
작업장에 가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기대했던 화요일날,
책이 안왔다.



마지막
수요일, 오지않았다.



그제-
내가 주문한 것
중에 외국에서
재고회신 중이
한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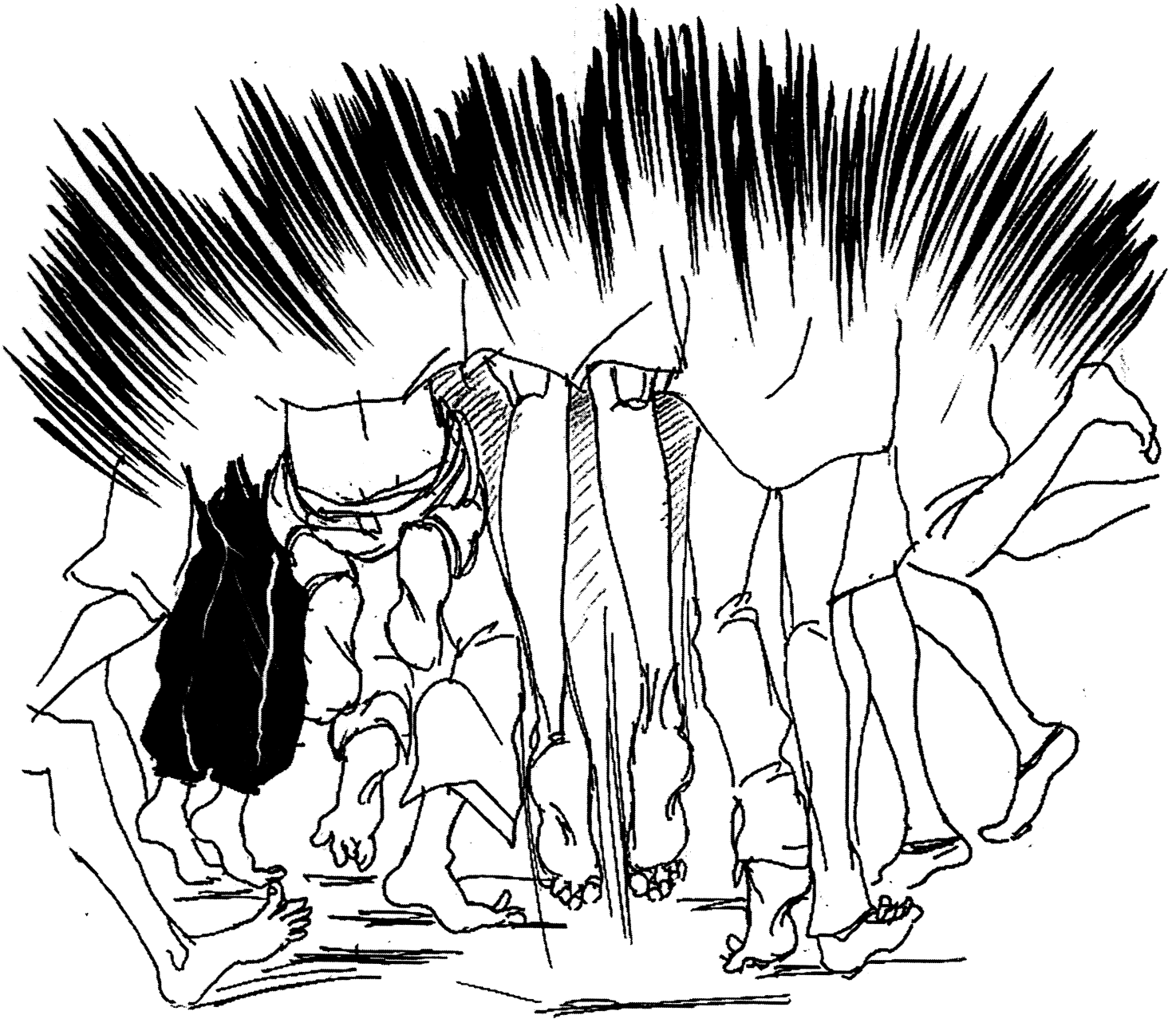


그럼 언제쯤
안타
못하길.

그제-
한 주일!

1주일간 몇일 후, 소포 도착.





경공 연극단

와, 끝



후 기

안녕하세요? 여태까지 저의 부족한 작품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디학교의 생활'에 대한 만화라는 주제 때문에 만화를 그리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추억들을 많이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년은 한번 밖에 지내보지 못한 간탄일, 학교를 이리저리 옮겨 다닌 일들, 시위를 하던 일들.....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프게 느껴지는 기억들이지만 저는 그때그때 있었던 친구들과 서로 주고받던 농담이나 장난을 치던 일이 생각나곤 하여 슬쩍 웃고는 하였습니다. 3년간의 간디학교생활은 저에게는 딱 그런 것이었습니다. 늘 친구들과 같이 먹고, 자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는 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그런 유쾌하고 따뜻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충돌은 다른 학교의 몇 배고, 남들 모르는 새에 치사한 짓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감정이 과장 되어서 때려 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은 인간도 생기게 되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아낀다는 것은 알지만, 그저 그것일 뿐이라고 느껴져서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받고, 동시에 선생님들께 상처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로 너털너털해질 수 있는 학교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이나 후배들, 선배들, 선생님들과의 즐거운 추억이 있었으니까요. 상당히 상투적인 글이 된 것 같습니다만 정말 단순하게 간디학교의 생활을 설명한 겁니다. 저에게 간디학교는 글로도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진흙탕 속에 듬성듬성 피어있는 연꽃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연꽃'들이 '오기'와 함께 피어서 저를 3년 동안 버티게 해 주었고, 간디학교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게 했습니다.

3년 동안 잘 놀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간디학교!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많이 애써주신 가족들.

간디학교의 많은 선생님들,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